

제주학연구 5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 방법론 연구

구 모 롱

Jeju Development Institute 제주발전연구원
Research Center for Jeju Studies 제주학연구센터 <http://jst.jdi.re.kr>

발 간 사

21세기 초국적 시대를 맞이하여 해역시점의 제주학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내고, 제주학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새로운 연구방법론 모색은 제주학 발전에 시급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는 제주를 설명하기 위해 해역 중심의 역사적 경험들을 해석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섬의 역사는 변경사나 주변사로 취급받아 왔으나, 육역이 아닌 해역 제주는 강한 로칼리티(locality)를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지역주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세계체계의 구조와 관점에 대한 변화가 요구됩니다.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은 제주가 지닌 로칼의 역사적 위상학에 기반하면서 해역세계(maritime world)의 네트워크성에 주목하고, 해역세계 속의 제주에 대한 성과들을 정리하여 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의 역사와 해역세계의 연관성, 교역과 교류, 표해와 표류의 역사, 문화접변과 문화교섭, 제주항로와 인적 물적 교류, 제주민 네트워크 구성, 타자의 시선에 비친 제주, 해역세계 제주와 평화도시 구상 등의 요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 정책으로는 제주를 하나의 결절지, 네트워크 도시로 재정립하고, 해역세계 제주라는 관점에서 문화전략,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스토리텔링으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다해주신 구모룡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10월

제주발전연구원
원 장 공 영 민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그동안 제주연구는 “국가스케일 중심적 시각”에서 진행된 것이 주류임.
- 국가적, 지역적 시각이 육역 중심이라면 “해역세계”는 또 다른 인식 지도를 가능하게 함
- 제주를 지역적, 세계적 시좌로 인식하는 일은 내륙의 시점이 아니라 해역세계의 시좌로 제주를 이해하는 방법적 전환이 있어야 함.
- 제주연구는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 제주의 새로운 위상학을 정립하는 작업이 되어야 함.
- 제주의 관점에서 제주를 인식하고 세계적 전망을 세우는 “방법으로서의 제주학” 나아가서는 “제주해학(濟州海學)”이 필요함

2. 연구의 방법과 목적

- 방법으로서의 제주학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제주학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의 핵심과제는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 정립임.
- 21세기 초국적(trans-national) 시대를 맞아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이 가지는 의의는 큼. 이를 통해 분쟁과 고난의 섬에서 평화와 희망의 섬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임.

II. 제주학의 연구 동향과 지역학

가. 제주학의 연구 동향

- 제주학의 방법적 모색이 진행된 것은 1990년대 후반임. 이 시기 “국제화” 라는 명분 아래 국가에 의하여 지역학이 권장됨.
- 그동안 제주학 연구의 동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임.
분과학과 자료학→통합과학, 학제적 연구→로칼리티에 대한 새로운 방법적 인식
- 선행연구들이 지닌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좌에서 해석을 가하고 방법론을 정립해야 함.

나. 지역학으로서의 제주학

- 지역학으로서 제주학은 지방적인(local) 것을 대상으로 함.
- 제주학은 지역학의 한 양상이지만, 기왕의 지역학에서 지역을 취급하는 국지적이고 부분적인 논의를 넘어서야 할 단계에 와 있음.
- 제주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설명은 제주의 역사적 경험들을 해석하면서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음.

다. 제주학의 곤경

- 지금까지 섬의 역사는 변경사나 주변사로 취급받아 왔으나 육역이 아닌 해역 제주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로칼리티를 지니고 있음.
- 제주학은 제주민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데서 가능함. 그 지난한 과정을 전제하지 않고 제주학을 말하긴 어려움.

Ⅲ. 제주학의 방법적 검토

가. 비판적 지역주의

- 새로운 지역주의는 먼저 기존의 지역중심주의 혹은 지방주의의 극복을 전제함.
- 새로운 지역주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스케일의 관점과 세계체계의 프랙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 새로운 지역주의는 “로컬”이라는 층위를 재인식하고 국가중심적 틀을 넘어서 사유하는 방법적인 모색임.

나. 동아시아 지중해론과 아시아 지중해론

- 브로델의 지중해론은 지역주의(regionalism)와 해역세계론을 형성하였음.
- 지역주의는 국가중심에서 세계를 국가 간 체제로 나아가게 하였다면 해역세계론은 육역이 아닌 해역의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함.
- 유럽의 지중해론에 빚댄 동아시아 지중해론과 아시아 지중해론은 한 반도와 제주를 다른 시야에서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

다. 해역세계와 해항도시 네트워크론

- 하마시타 다케시는 바다의 아시아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음. 이는 바다가 역사 속에서 인간 사회와 다양한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해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임.
- 하네다 마사시는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세계화하고 변화무쌍하며 상호 연결된 세계의 현실에 타당하고 부합하는 새로운 세계사 모델로 1990년대 이래 제시된 해항도시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강조함.

IV.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 방법론

가. 제주학과 해역세계

-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은 제주가 지닌 로칼의 역사적 위상학에 기반하면서 해역세계(maritime world)의 네트워크성에 주목함.
-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기왕의 연구에서 해역세계 속의 제주에 대한 성과들을 정리하여 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임.

나.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의 사례

- 제주와 제주민의 정체성을 해역세계와 연관시켜 ‘해민’의 공간 혹은 ‘해민정신’의 세계로 이해한 이는 송성대, 고용희, 주강현, 이영권 등임.

다.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의 양상

-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은 대략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내용으로 함.
 - 제주의 역사와 해역세계의 연관성
 - 해역세계에서의 교역과 교류
 - 해역세계에서 파생된 표해와 표류의 역사
 - 섬 네트워크와 제주
 - 해역세계와 다양한 문화접변과 문화교섭
 - 근대 제국 지배기 제주의 항로와 인적 물적 교류
 - 내국 이민과 해외 이민으로서의 제주민 네트워크
 - 타자의 시선에 비친 제주
 - 다양한 재현에 나타난 해역세계 제주의 양상

- 제주 네트워크의 역사적 변화과정
- 해역세계 제주와 평화도시 구상

V.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과 정책적 과제

-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를 설정함으로써 아시아 해역 속의 제주를 하나의 결절지 혹은 네트워크 도시로 재정립함.
- 제주가 지닌 내발적 발전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해역 제주라는 문제설정이 가능함.
- 해역세계 속의 제주라는 관점에서 문화전략,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스토리텔링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방법과 목적	3
II. 제주학의 연구 동향과 지역학	4
1. 제주학의 연구 동향	4
2. 지역학으로서의 제주학	7
3. 제주학의 곤경	9
III. 제주학의 방법적 검토	17
1. 비판적 지역주의	17
2. 동아시아 지중해론과 아시아 지중해론	22
3. 해역세계와 해항도시 네트워크론	25
IV.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 방법론	32
1. 제주학과 해역세계	32
2.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의 사례	36
3.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의 양상	39
V.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과 정책적 과제	54
참 고 문 헌	57
ABSTRACT	60

표 목 차

<표 1> 사회공간적 관계의 4가지 핵심적 차원들	19
<표 2> 세계화의 원근법	20
<표 3> 해역통치의 다층구조	28
<표 4> 시기별 교역 내용	41

그 립 목 차

<그림 1> 탐라순력도 한라장축	33
-------------------------	----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그동안 제주연구는 “국가스케일 중심적 시각”¹⁾에서 진행된 것이 주류임.
 - 국가스케일 중심적 시각은 제주를 국가의 행정구역의 한 지역으로 인식함.
 - 국가스케일 중심적 시각은 국가보다 큰 영역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음.
 - 국가스케일 중심적 시각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대륙-반도-열도로 규정하는 시각과 일치함.
 - 그러나 우리는 국민국가의 주변이나 경계 영역에 많은 물적, 인적 교섭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국가적(national) 시각을 넘어서 지역적(regional) 스케일로 볼 때 많은 주변들이 네트워크의 결절점(nodal point)으로 부각됨을 이해하게 됨.
- 국가적, 지역적 시각이 육역 중심이라면 “해역세계” (maritime world: 그 중심에 바다를 가진 권역)는 또 다른 인식지도를 가능하게 함.
 - 해역 속의 섬인 제주는 동아시아 해역의 역사 속에 존재하였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접근이 가능함.
 - 제주연구 혹은 제주학에 관한 해역세계라는 시각의 방법론적 모색이 요청됨.
-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것은 2002년임. 아울러 행정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은 2006년 7월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국가적 차원에서 제주의 위상을 재인식하였음을 의미함.
 - 제주를 반도의 부속도서로 간주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1) 박배균·김동완 편, 『국가와 지역』, 알트, 2013, p. 7.

- 아와 해역세계 속에서 그 위상을 세우는 과정이 요구됨.
- 이는 한편으로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방(local) 혁신을 이끌어내려는 국가적 기획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음.
- 제주를 지역적, 세계적 시좌로 인식하는 일은 내륙의 시점이 아니라 해역의 시점으로 제주를 이해하는 방법적 전환과 연관되어야 함.
- 역사적으로 제주는 해역 속에서 육역의 지배와 복속의 과정을 경험하였음. 21세기에 이르러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자치가 부여되었음. 이러한 내외의 사정 변화는 제주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됨.
 - 지역의 정체성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됨. 제주는 그 기원의 역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체성의 변화를 겪어왔음. 새로운 정체성은 이러한 변화들을 주목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가하는 일과 더불어 형성됨.
- 육역과 해역은 이분법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님. 그럼에도 어디에 시좌를 두느냐에 따라 한 지역의 위상은 크게 달라짐.
- 예를 들면 오끼나와와 제주가 그러함. 육역의 국가 중심의 시각에서 이들은 주변이지만 해역의 관점에서 이들은 네트워크의 거점이 됨.
- 제주연구는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 제주의 위상학을 정립하는 작업이 되어야 함.
- 조선시대의 유교 봉건주의와 20세기 제국주의와 국가주의에 포박된 제주를 방법적으로 재인식하는 일은 새로운 제주학을 위해 요긴함.
 - 새로운 제주학은 달리 “방법으로서의 제주”라는 관점을 필요로 함. 타자의 관점이 아니라 제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자는 것임.
 - 탐라국 기원에서 오늘에 이르는 교역과 교류의 역사를 통해 정립될 수 있음.
- 제주의 관점에서 제주를 인식하고 세계적 전망을 세우는 “방법으로서의 제주학” 나아가서는 “제주해학(濟州海學)”이 필요함.

2. 연구의 방법과 목적

- 기존의 제주학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제주학의 대상과 범위는 매우 광범하며 그동안 연구의 성과 또한 심대함.
 - 기존의 제주학을 검토하는 일은 여러 분야에서 연구된 연구 성과를 망라하려는 것이 아님. 이러한 일은 연구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도 아님. 따라서 여기서 목적하는 바는 방법과 이론에 대한 검토임.
- 방법으로서의 제주학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제주학을 모색하고자 함.
 - 방법으로서의 제주학은 주변 혹은 변경의 시점에서 제주를 이해하려는 것이 아님. 이것은 한편으로 기존의 국가주의를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 향토를 중심에 두는 자기중심적인 지방주의를 넘어서려는 데 목적을 둠.
 - 방법으로서의 제주학은 달리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임. 이는 제주의 역사적 기원과 해역세계에서의 교류와 교역이 가지는 의미망을 재해석하여 제주의 위상을 재배치함.
 - 이를 위해 비판적 지역주의, 지역적 세계체제론, 해역세계론, 동아시아 지중해론 등 다양한 이론들을 정리하고자 함.
- 본 연구의 핵심과제는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 정립임.
 - 이를 위해 역사적으로 해역 속의 제주와 연관된 교역과 교류에 관한 쟁점들을 정리하고 재해석할 것임.
 - 이를 통해 동아시아 해역세계 속에서 제주의 위상을 규명하고 이를 미래전망으로 삼는 문화정책적 방향을 궁구하고자 함.
- 21세기 초국적(trans-national) 시대를 맞아 해역 시좌의 제주학이 가지는 의의는 큼. 이를 통해 분쟁과 고난의 섬에서 평화와 희망의 섬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임.

Ⅱ. 제주학의 연구 동향과 지역학

1. 제주학의 연구 동향

- 문순덕은 각 분야별 제주학 석사/박사 논문들이 제출되고 있지만 아직 제주학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진행중임. 아울러 통합적인 제주학 연구는 과제로 남아있다고 발표함²⁾.
- 제주학의 방법적 모색이 진행된 것은 1990년대 후반임. “국제화”라는 명분 아래 국가에 의하여 지역학이 권장됨.
 - 유철인(「지역연구와 제주학」, 1996)은 그동안 제출된 제주학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여 사회과학적으로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함.
 - 현길언(「제주학 연구방법론」, 1997)은 문학연구와 제주학을 관련시켜 주변성에 주목하고 있음. 그는 분과학을 기반으로 제주학을 전망하면서 국가 내의 특이성을 제시하려 했음.
 - 제주학에 대한 반성과 비판은 박찬식(「제주학의 성과와 전망」, 1998)에 의해 본격화됨. 그는 근현대사의 관점에서 제주학을 점검하면서 지방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아울러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학제적이고 통합적인 연구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방법적 차원에서 제주학이 모색된 것은 전경수³⁾에 의해 이뤄짐 : “중심 주제를 제주도라는 지역으로 설정한 제주학이 제대로 하나의 학으로서 성립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방법론이 부실한 제주학은 하나의 학으로서 존재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제주학의 방법론에 대해서 심각하고도 정치한 논의를 전개해야 할 도전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

2) 문순덕, 「제주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2012.

3) 전경수, 「지역연구로서 제주학의 방법과 전망」, 『탐라 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주학이라고 호칭한다고 해서 제주학이 성립된다고 생각하면, 제주학의 기반은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

-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전경수는 제주학의 방향을 1) 광역화 2) 정보화 3) 통합과학 4) 주민중심의 정신 등 네 가지로 설정함. 이들 각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광역화 : 제주라는 문제의식을 정치적으로 한정된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열린 해양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인식지평의 제고. 육지의 말단에 부속된 갠헨 섬으로서의 제주가 아니라 동중국해의 구심점으로서 인식되는 지도를 재확인하자는 것.

2) 정보화 : 지역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설정 없는 지역 연구는 허구적일 수밖에 없음. 학문분야별로 그동안 축적되어온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제주학 정보화의 요체.

3) 통합화 : 기존 학문영역의 배타성을 극복하고 통합과학의 정신을 구현하는 지역연구로서 제주학을 지향.

4) 주민화 : 제주학의 궁극적인 실체는 제주이고 제주학 연구의 결과가 가장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착점은 바로 제주임.

- 이들 네 가지 방향에서 주목되는 것은 1)광역화인데, 그에 의해서 해역 시좌의 제주학이 제안됨.

○ 지역학이 통합학문이며 그것이 정보화를 통하여 집적되어야 하는 것은 지당한 일임. 또한 타자의 눈(제국과 국가의 시각)에 비친 지역이 아니라 주체의 시각으로 연구되고 환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화는 지역학의 시각과 실용주의를 의미함. 전경수의 이러한 방향 제시는 매우 타당하지만 선언적인 데 그침.

○ 김성수(「지역 특권화와 문화 화석화를 넘어서」, 2008)는 타자의 시선으로 제주학 동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음.

- 지방주의, 향토주의가 지닌 자기중심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사와 향토사 연구에서 보이는 경향들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라 할 수 있음.

- 지역학이 로칼 영역에 대한 연구이지만 이것은 항상 내셔널한 층위와 리저널한 층위, 나아가서 글로벌한 층위와 접합하게 마련임.

○ 조성윤(「지역 연구 모델로서 제주학의 발전 방향」, 2008)이 분과 연구에 치우친 제주연구의 현실을 비판하고 학제적·통합적인 연구과제를 제안하거나 김치완(「제주에서 철학하기 시론」, 2011)이 로칼리티 연구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맥락에 대한 바른 접근의 필요성을 제고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김치완이 로칼의 시공간이 세계와 만나는 변증법적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지적한 의의가 주목됨.

- 조성윤과 김치완은 국가주의적 경향(주변과 변경 섬으로서의 제주)과 향토주의적 경향(자기중심적인 지방주의)를 극복하고 로칼이 내셔널, 리저널, 글로벌과 연계되는 과정을 주목하고 있음.

○ 앞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 외에도 그동안 많은 연구논문들이 제출되었지만 그동안 제주학 연구의 동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도를 보임.

분과학과 자료학→통합과학, 학제적 연구→로칼리티에 대한 새로운 방법적 인식

○ 선행연구들이 지닌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좌에서 해석을 가하고 방법론을 정립해야 함.

- 우선 지적할 것은 자료학으로서의 제주학이 지닌 위상을 정립, 자료학은 모든 연구의 기초이며, 따라서 자료학으로서의 제주학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 선행연구들을 해역세계라는 관점을 통하여 새로운 제주학을 구성할 수 있겠음.

- 새로운 제주학은 탐라국 기원의 해역성, 교류와 교역의 역사를 통한 해역세계 속의 제주, 제주가 보인 다양한 해역 네트워크 방식, 해역세계 네트워크로서의 제주도에 대한 전망 등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서술하는 일임.

2. 지역학으로서의 제주학

- 지역학과 지역연구는 구분되어야 함.⁴⁾
 - 지역연구는 타자의 삶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주로 세계단위에서 이루어져 왔던 Area Studies를 의미함. 이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추악한 신조어”라고 폄하했듯이 제국주의 국가의 정책학적인 측면을 내포함. 물론 타자성을 지향하는 문화인류학의 민족지학이 지니는 의의는 간과할 수 없음.
 - 지역학(Regional Studies)은 연구주체가 포함된 지역에 대한 학적 접근임. 따라서 지역의 특수성 규명을 주된 목표로 함.
- 지역학으로서 제주학은 지방적인(local) 것을 대상으로 함. global/local의 상호관계가 말하듯이 지역학은 지방학(local studies)을 포함하고 있음.
- 제주학이란 무엇인가는 물음은 자명한 답이 있어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님.
 - “무엇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자명한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질문 자체에 ‘자명성의 오류’를 품고 있음.
 - 무엇보다 지역학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구성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봄으로써 제주학의 전망을 말할 수 있을 것임.
- 제주학은 지역학의 한 양상이지만, 기왕의 지역학에서 지역을 취급하는 국지적이고 부분적인 논의를 넘어서야 할 단계에 와 있음.
 - 지역연구(area studies)의 외부를 향한 정책과학적 편향은 주체를 포함한 연구인 제주학과 차별화됨.
 - 지역조사연구의 분과학문적, 실증적, 통계학적 경향 또한 지역의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해야 하는 단계가 아님.
 - 자료학은 모든 지역학의 바탕이 되어야 함. 그럼에도 그 자체로 지역학을 대신할 수 없음.
 - 문화인류학의 민족지(ethnography)에 연원한 민속학은 잔존문화 연

4) 야노토루, 「지역연구란 무엇인가?」, 『지역연구의 방법』, 야노 토루 엮음, 전예원, 1997, pp. 19-25. 전경수,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대 출판부, 1999, pp. 92-93. 참조.

구에 한정된 시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도시와 마을의 현실문화에 대한 민족지학적 기술로 이어질 때 지역학으로의 확장이 가능한 것임.

- 잔존문화 연구는 자주 향토사 연구의 지방주의(localism)와 결합하기도 함.
 - 지방주의의 한계는 주체로 환원되는 시각에 있음. 타자와의 교섭과정에 대한 관심의 확대가 필요함.
- 기왕에 전개된 제주학은 연구 자체가 주목하는 분야들—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간, 시간, 정체성 등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각기 개별 주제에 집중되어 있음.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한 동안 계속될 것이며 제주에 대한 부문연구의 과제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연구 영역간의 연계를 고려하면서 심화될 필요가 있음. 어떤 의미에서 다양한 시각을 지닌 연구자들이 제주를 이해하는 방식들에 대한 소통과 만남이 요긴함. 각각의 시각에 제한되어 있는 관점을 통합하는 학제적 연구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경주되어야 할 시점.
- 제주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설명틀은 제주의 역사적 경험들을 해석하면서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음. 이는 21세기 제주학이라는 문제의식에 상응함.
- 20세기말 진행된 세계화 혹은 전지구적 자본주의는 제국과 식민, 국민국가 내의 중앙과 지방 등 이항대립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지역을 바라볼 것을 요구함.
 - 이러한 점에서 식민지 수탈론의 제주연구와 지역불균등(균형) 발전론의 제주연구는 일방의 편향을 지니는 것으로 보임.
 - 제주라는 국지적인(local) 공간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는 국가적(national), 지역적(regional) 문제가 중첩적으로 개입함. 따라서 제주라는 지역이 지닌 기억과 경험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요긴함.
 - 제주학은 기원의 탐라국에서 국가 복속을 거쳐 자치도로 성장하는 경로들을 추적해야 하고 제국과 국가에 의해 변화되어 온 과정을 서술해야 함.
 - 또한 근대 국가체제를 넘어서려는 21세기 현재의 시점에서 정치, 경

제, 문화의 층위가 상호 연동된 제주의 지역적 성격을 따져야 함. 특히 문화와 공간은 21세기 새로운 탈근대 도시(post-modern city)를 창안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개념들임. 초국적주의(transnationalism)가 개입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새로운 제주학은 1)문화인류학의 자국인류학으로의 전회(도시민속학, 민족지적 방법의 지역연구) 2)문화연구의 통합적(학제적)경향 3)장소와 공간의 문화정치학 4)세계체계론과 지역적 세계체계론의 비판적 지역주의론 5)해역세계론(하네다 마사시)과 네트워크론(테라시마 지쓰로오) 등을 수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제주학은 오늘의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변화되어온 제주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규명하면서 내일의 지역으로 나아가는 전망을 제시하여야 함.
- 제주의 미래상은 과거와 현재와 단절을 의미하지 않음. 이는 공간에 누적된 의미들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려질 수밖에 없음.

3. 제주학의 곤경

- 제주학의 어려움은 문충성 시인의 다음과 같은 시를 통해 먼저 이해할 수 있음.

누이야, 원래 싸움터였다.
 바다가 어둠을 여는 줄로 너는 알았지?
 바다가 빛을 켜는 줄로 알고 있었지?
 아니다, 처음 어둠이 바다를 열었다. 빛이
 바다를 열었지, 싸움이였다.
 어둠이 자그만 빛들을 몰아내면 저 하늘 끝에서 힘찬 빛들이 휘몰아
 와 어둠을 밀어내는
 괴로와 울었다. 바다는
 괴로움을 삭이면서 끝남이 없는 싸움을 울부짖어 왔다.

누이야, 어머니가 한 방울 눈물 속에 바다를 키우는 뜻을 아느냐. 바늘
 귀에 실을 꿰시는
 韓半島의 슬픔을. 바늘 구멍으로
 내다보면 땀 냄새로 열리는 세상.
 어머니 눈동자를 찬찬히 올려다보라.
 그곳에도 바다가 있어 바다를 키우는 뜻이 있어
 어둠과 빛이 있어 바다 속
 그 뜻의 언저리에 다가갔을 때 밀려갔다
 밀려오는 日常의 모습이며 어머니가 짜고 있는 하늘을.

濟州 사람이 아니고는 진짜 濟州 바다를 알 수 없다.
 누이야, 바람 부는 날 바다로 나가서 5월 보리 이랑
 일렁이는 바다를 보라. 텀벙텀벙
 너와 나의 알몸뚱이 幼年이 헤엄치는
 바다를 보라, 겨울 날
 초가 지붕을 넘어 하늬바람 속 까옥까옥
 까마귀 등을 타고 濟州의
 겨울을 빛는 파도 소리를 보라.
 파도 소리가 열어 놓는 하늘 밖의 하늘을 보라, 누이야.
 (문충성, 「濟州바다·I」 전문)

- “濟州 사람이 아니고는 진짜 濟州 바다를 알 수 없다” 는 시인의
진술은 향토애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의 발로가 아님. 제주 바다가
“싸움터” 였음을 아는 이들은 한반도의 변방인 제주사람들임.
- 관광객의 “조망적인 시선” 으로 제주의 속살을 알 수 없음. 또한 한
반도에 속한 섬으로 인식한다면 제주는 늘 타자의 지평에 놓여 있
게 마련임.
- 제주의 입장에서 바다는 “빛” 이자 “어둠” 임. 해역세계로 무한하게
뻗어가던 탐라 시대의 바다는 빛으로 열려 있었음.

- 한반도의 남해안과 일본의 큐슈, 중국의 주산군도와 류큐 그리고 멀리 안남에 이르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던 탐라의 시대는 내륙의 국가권력이 해역에 미치면서 기울었음. 대륙의 제국 원은 고려와 탐라를 거의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였음.
- 그러나 원이 망하면서 탐라는 한반도의 권력에 예속됨. 이로부터 바다는 어둠으로 가득 차고 빛은 희미해지게 된 것임.
- 조선 시대의 제주는 유폐된 유배의 섬이었음. 국가의 모진 착취는 제국의 착취로 이어지고 마침내 해방의 빛이 제주 바다를 가득 채우지만 곧 어둠이 몰려옴.
- 국가 폭력으로 많은 민중이 희생됨. 그래서 “바다는/괴로움을 삭이면서 끝남이 없는 싸움을 울부짖어 왔음.” 제주는 단지 “한반도의 슬픔”이 아님. “어머니가 한 방울 눈물 속에 바다를 키우는 뜻” 품듯이 새 “하늘”을 향한 염원은 제주민의 일상 속의 육체가 되었음.
- 국가가 만든 틀과 육역의 시좌로 바다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일상이 된 제주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음. 그러므로 “濟州 사람이 아니고는 진짜 濟州 바다를 알 수 없다”는 시인의 말을 우리는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함.
- 지금까지 섬의 역사는 변경사나 주변사로 취급받아 왔음. 국가 스케일에서 균일성과 균질성이 하나의 이념으로 강조될 때 주변 지역, 특히 섬 지역은 본토와의 차이에서 후진성이 지적되었음. 이는 국가의 중심성, 중앙성, 구심성이 강조되고 목표가 된 결과, 주변 지역이 유지되고 있던 독자성은 균질화의 대상이 되기보다 오히려 중앙에서의 원조나 보조의 대상이 되어버림. 이 점이 육역의 지방과 다른 섬의 로컬리티임. 하지만 우리는 다음처럼 질문을 던질 수 있음. “주변사나 변경사를 중심에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시점에서 본다면 어떠한 역사적 견해가 발생할까?” 그럴 때 주변이나 변경은 다른 문화와 접촉하며 상호 교류의 장을 구성하고 문화 교섭의 장을 형성하는 개척자라 할 수 있을 것임.

- 1987년 3월 혼란한 정국 속에서 이산하 시인은 장편서사시 『한라산』 (『녹두서평』 창간호)을 발표하여 1970년대 작가들에 의해 간간이 증언되던 ‘제주의 4·3 사건’을 다시 세간에 증폭하였음. 이는 민주화와 민족 해방에 대한 시인의 불타는 정념의 소산임. 이 일로 시인은 도피 생활 끝에 구금되어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후일 2년간 제주에 체재하고서 제주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음.

“나에게는 제주인의 정서가 마치 내공이 깊은 대나무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안을 비워놓음으로서 바깥을 단단하게 하고 그 안팎을 적당한 간격으로 한 번씩 매듭을 지음으로써 수직으로의 상승을 꿈꾼다. 제주인의 꿈은 대나무가 그러하듯 옆으로 뻗는 것이 아니라 위로 뻗는 것이다. 이 외롭고 높고 쓸쓸한 섬을 바다는 늘 수평으로 받쳐주고 있다. 삶은 수평과 수직의 어긋남이고 그 어긋남이 제주인의 정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제주도에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내 손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보아야 그 어긋남의 정서에서 비롯되는 ‘제주도의 힘’을 어렵풋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인은 이미 태생적으로 모두 삶의 바닥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바닥까지 내려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이산하, 『한라산』, 시학사, 2003, pp. 148-149.)

- 이산하의 이러한 고백 또한 제주학의 곤경을 말하는 대목으로 읽을 수 있음.
- 이산하의 『한라산』은 미완임. 시인은 자신의 작품을 판단 정지시킴. 제주를 알려고 하면 할수록 설명의 틀을 찾을 수 없었다는 데서 그 이유가 있음.
- 일제말의 병참기지였던 제주는 자칫 오끼나와와 같이 처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음. 그럼에도 시인이 민족해방과 반제국주의라는 인식의 틀로 제주의 4·3을 서술하는 서사시를 쓴 것임.
- 제주를 제주민의 시각에서 이해하려 할 때 시인은 자신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외부자의 외재적 사유임을 자각하게 됨. 이러한 그는

“4·3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찾지 못하면서 절망함.

- 육역이 아닌 해역 제주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로칼리티를 지니고 있음. 그로서는 “제주인의 유전형질이 먼 탐라국 시절부터 외부와의 끊임없는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 이미 ‘육지것’들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변형되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음.” 제주를 제주민의 시좌(視座)에서 알 수 없는 한 그의 서사시는 완성될 수 없었던 것임. 설혹 그가 제주인의 정서 깊숙이 교감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서사시는 새로 쓰이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임. 이런 사정에 비춰 이산하 시인이 그의 서사시를 미완으로 남겨 둔 일이 매우 정직함.

- 김영갑은 1985년 제주에 정착하여 2005년 타계하기까지 20여년 제주만 찍은 사진작가임. 말년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음.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싶어 홀로 걸었다. 자유로운 만큼 고통도 따랐다. 그러나 자유로운 삶의 어두운 부분도 내 뒤흔이기에 기꺼이 감수했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일 때만 가능하다는 생각에 마라도에서 혹은 이름 없는 섬에서 혼자 지내보았다. 그러나 며칠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후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체념했다.

혼자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혼자이길 원했다. 혼자일 땐 온전히 사진에만 몰입할 수 있다. 남들이 일중독이라고 충고해도 웃어넘겼다. 중독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세상과 삶을 보고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십여 년 동안 사진에만 몰입하여 내가 발견한 것은 ‘이어도’다. 제주 사람들의 의식 저편에 존재하는 이어도를 나는 보았다. 제주 사람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를 나는 온몸으로 느꼈다. 호흡 곤란으로 죽음의 경계에 서 있을 때 나는 이어도를 만나곤 한다.” (김영갑, 『그 섬에 내가 있었네』, Human & Books, 2004, pp. 26-27.)

- 궁극적으로 제주학은 제주민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데서 가능함. 그 지난한 과정을 전제하지 않고 제주학을 말하긴 어려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김영갑이 만난 ‘이어도’의 의미는 제주학의 곤경을 말하기에 족함.

- 제주는 “대지의 노모스”에 의해 지배당해 왔음. 열린 바다, 희망의 바다가 모순과 아이러니로 가득하게 된 것임. 국가의 상태(주디스 버틀러에 의하면 state는 국가이자 상태)에 따라서 제주는 수축과 이완을 경험하였음.

○ 고은의 다음과 같은 시도 제주학의 곤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이어도로 가리
바다 건너, 마른 호박빛 수평선 너머
내 절망으로부터 이어도로 가리
오 내 나라여, 나를 떠나게 해다오
황폐한 시간과 들판
그리고 내가 태어난 자궁을 모두 넘겨버릴 것이다
내 정든 옛집도 버릴 것이다

다친 다리 살갓 벗겨지며
나는 뼈의 노를 저어
바다로 나아가리
그동안 나는 어린 고기처럼 절망에 내던져졌다
바다는 낙하하는 갈매기가 절망을 떨쳐 안식할 수 있는 곳

이어도로 가리
땅이 스스로 넓어진다
바다 역시 스스로 넓어져 이어도에 닿아 있다
오 내 나라여, 나를 떠나게 해다오
여자와 몇가지 가진 것과 몰래 묻힐
남의 땅 묘지를 떠나
이어도로 가리 내가 오래 살았던 곳 내던져버리고

이어도로 가리 내 절망으로부터
바다 건너

태양은 떨리는 수평선 위로 질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빛이 오래 저주받은 밤으로부터
이어도 위로 떠올라 날이 새이리라
내 삶의 수많은 절망으로부터 이어도로 가리
(고은, 「이어도」 전문)

- 제주사람들은 섬을 떠나 또 다른 섬인 “이어도”로 떠나려 함. 이를 고은은 “절망” 때문이라고 함. 시 속의 주인공을 절망하게 한 것은 시의 문맥을 따를 때 “내 나라”라 할 수 있음. 관리의 탄압과 폭정, 국가 폭력을 겪으면서 사방을 둘러싼 수평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심정은 “절망”이었음. 이러한 절망으로부터 탈주하거나 다른 곳으로 망명하려는 지향이 “이어도”라는 환상의 섬을 형성하고 있는 것임.
- “이어도”는 “수평선”이라는 한계를 넘어 존재함. 그러나 “수평선”을 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임. 이처럼 아이러니 속에 “이어도”가 하나의 표상이 되었음. 그렇지만 아이러니는 절망과 희망의 변증법임. 끊임없이 현실에 회의하지만 끝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염원을 놓치지 않음.
- 고은의 「이어도」는 놀랍게도 문충성의 다음과 같은 문장과 만남. “수평선—그것은 우리의 오랜 그리움이어서 건너가야 될 꿈이요 절망이다. 오랜 그리움이라 함은 우리가 찾아야 될 낙원—은 ‘이어도’로 나타나는 것이며, 꿈은 인간살이의 최고 절정에 이르는 길이며, 절망은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한번씩 가야 될 죽음이다.”(문충성, 『그때 제주바람』, 문학과지성사, 2003. p. 158.) 물론 문충성의 “이어도”는 정치학을 함의한 고은에 비해 존재론적인 편향을 지니고 있음. 그렇지만 절망의 존재론이란 절망의 정치학과 사회학에서 기인하는 바 큼. 넘고 넘어도 가이없는 수평선의 외부에 “이어도”를 만드는 마음의 현상학은 육역의 사람들이 결코 수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임.
- 제주라는 장소(topos)는 많은 함의를 가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자신을 바라볼 것을 요청함. 제주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며 그 속에 사는 주민임. “변방의 변방”으로 내몰린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시각에서 새롭게 서술하는 일이 중요로움. 또한 육역에 갇힌 시야를 해역으로 돌려 바다에서 제주를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 제주는 국가중심적인 스케일이 아니라 해역세계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배치되어야 함. 제주는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 지중해의 섬 네트워크의 한 결절지가 되어야 함. “삶의 수많은 절망”을 유발한 “나라”는 더 이상 제주를 수탈과 지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야 함.
- 미국의 인문지리학자 데이비드 네메스는 “계몽된 저개발(enlightened undedevelopment)”이라는 개념으로 제주가 지닌 문화경관을 해석한 바 있음. 그에 의하면 제주는 자연, 인간, 세계가 조화로운 장소이고 제주민은 고된 일상을 지혜로 극복해온 사람들임. 여기에다 해역세계의 주역인 그들의 개방성과 관용성을 더한다면 우리는 제주와 제주민이야말로 “오래된 미래”에 다를 바 없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임.
- 타자화된 “제주바다”는 그 본연의 물빛을 되찾고 유지해야 함. 제주 또한 타자 지향적인 경관으로 나아가는 일을 중단해야 함. “濟州 사람이 아니고는 진짜 濟州 바다를 알 수 없다”는 한 시인의 진술은 제주학을 궁구하는 이들이 반드시 새겨야 문장임.

Ⅲ. 제주학의 방법적 검토

1. 비판적 지역주의

- 지역주의론은 지역 간의 차별과 소외라는 사회적 모순 상황에서 형성되는 담론임.
 - 80년대의 반민주적 상황에서 지역사회학 등의 영역에서 이론적 전망과 실천 계기를 보였음.
 -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지역주의론이 가지는 위상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음.
 - 냉전체제 와해 이후의 전지구적 자본주의는 지역문제를 재인식하게 함.
 - 세계자본주의의 반(半)주변부에 속한 한국사회가 빠른 속도로 세계 시스템에 흡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이와 함께 안으로 중심부에 자본과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며 주변부 지역의 소외 현상은 그 어느 시기보다 두드러지게 됨.
 - 전지구적 자본주의는 주변부적 다양성, 지역적 다양성을 규격화하거나 표준화하여 모든 사회 체계와 문화를 동질화하려 함.
 - 사회 전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하는 사회 시스템이 형성되면서 중심부의 비대화와 주변부의 빈곤화라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 새로운 지역주의는 중심부 중심의 사회 시스템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창안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반-시스템 운동” (I. 윌러스틴)이 됨.
 - 문화적 다양성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다양성에서 유발되는 것이므로 신지역주의는 생태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생태-시스템 실현 운동과도 연관됨.

- 새로운 지역주의는 먼저 기존의 지역중심주의 혹은 지방주의의 극복을 전제함.
 - 지역중심주의 혹은 지방주의는 중심과 주변의 마니교적 이원론과 연관됨.
 - 중심의 특권적 시선에 의해 지방은 자주 차별된 표상으로 그려지고 중심에 반발하는 지방의 심리는 그 이율배반적 정념으로 크게 왜곡되고 있음.
 - 중심과 주변은 서로 다른 심상지리(心象地理)를 포지하며 중심은 스스로 대표성과 일반성을 견지하고 주변부는 예외성과 특수성을 인식함.
 - 중심의 문화표상과 지방의 문화표상이 다르다는 분열적 문화 경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자본과 권력의 중심 집중에서 찾아지지만 이에 못지않게 경험을 배타적으로 적용하는 지방주의가 원인이 되기도 함.
 - 지방주의는 중심주의와 더불어 중심과 주변의 이원론을 강화하고 지속하는 공범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지방주의의 이율배반적 지향성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남.
 - 1) 지방의 경험과 유산 그리고 기억들이 지닌 순수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 고유한 풍토 환경, 전통, 문화유산 등에서 자기정체성을 찾는 이러한 입장은 역사 속에서 접변하는 문화현실의 구체성을 외면함.
 - 2) 지방 스스로 문화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자립주의 : 주민자치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납득되나 지방의 다층적인 모순 현실을 외면하기 쉬움.
 - 3) 중심의 시선으로 지방을 계몽하는 지방주의자들의 입장 : 우세한 중심의 문화를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지방의 낙후와 후진을 중심의 독점 탓으로 돌리지만 지방문화의 특수한 국면들을 간과하기 쉬움.

- 새로운 지역주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스케일의 관점과 세계체계의 프랙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 스케일의 관점은 영역을 이해하는 다층적인 인문지리학적인 시야를 의미함.

<표1> 사회공간적 관계의 4가지 핵심적 차원들

사회공간적 관계의 차원	사회공간적 구조화의 원리	사회공간적 관계의 패턴
장소 (Place)	접근성, 공간적 뿌리내림, 지역적 차별화	공간적 분업의 형성, 중심과 주변 사이에 형성되는 수평적 사회관계의 차별화
영역 (Territory)	경계 만들기, 울타리치기, 구획화	내부/외부의 구분, 영역 내부에 대한 외부의 구성적 역할
네트워크 (Networks)	상호연결성, 상호의존성, 횡단적이거나 리즘적인 차별화	연결의 결절지점들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 결절점들 사이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의 차별화
스케일 (Scale)	위계화, 수직적 차별화	스케일 간의 분업의 형성, 지배적, 결절적, 주변적 스케일들 사이에 형성된 수직적인 사회적 관계의 차별화, 다중스케일적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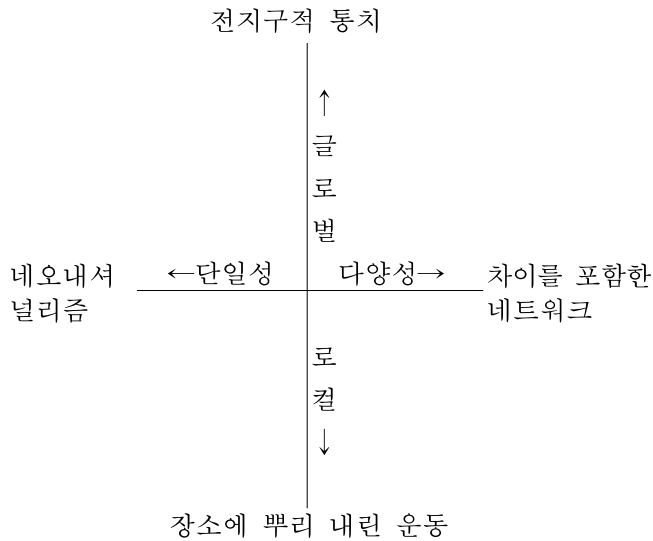
(출처: 박배균·김동완 편, 『국가와 지역』, p. 29.)

- 국가중심의 스케일은 서울과 지방, 중심과 주변의 위계화를 불러오고 지방 또한 일국 내 종속 단위로 논의됨.
- 다중 스케일의 관점은 지방적인(local) 것, 국가적인 것(national), 지역적인 것(regional), 세계적인(global) 것이 상호 연관되는 양상을 이해하게 하며 지방성(locality)을 재해석하게 함.
- 제주학의 입장에서 지방적인 것이 국가적인 것을 넘어 지역적인 것과 상호 연관되며 세계적인 것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국민-국가 내의 “변방” 이라는 관점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게 함.
- 중심과 주변들의 관계는 중층적인 복잡성을 지니며 마치 프랙털과

같이 부분들과 전체의 다층적인 연관성을 드러냄.

- 새로운 지역주의는 중심의 시점에서 그려진 심상지리와 주변의 시점에서 그려진 심상지리의 비대칭적 이항대립에서 벗어나 주변과 중심의 다층적인 연관을 사고하는 새로운 심상지리를 그려가야 함.
- 지역주의의 원근법과 세계화의 원근법은 네오내셔널리즘을 넘어서 차이를 포함한 네트워크를 지향하게 함.

<표 2> 세계화의 원근법⁵⁾



- 새로운 지역주의는 지역적이고 전지구적인 '인식지도그리기'와 연관됨. 이는 우리가 어떻게 지역과 세계(지방-국가-지역-세계)를 분절하는지를 보여주며 지방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을 연계시키는 방식을 제공함.

○ 새로운 지역주의는 “로컬”이라는 층위를 재인식하고 국가중심적 틀을 넘어서 사유하는 방법적인 모색임.

5) 강상중 · 요시미순야, 임성모 외역, 『세계화의 원근법』, 이산, 2004, p. 71

- 로칼은 몸(body), 가족(family), 사회(communitiy) 등의 차원에 해당하지만 더 큰 스케일인 국가적(national), 지역적(regional), 세계적(지구적(global) 영역을 따라 중층적으로 확장됨.
 - 로칼의 장소는 세계의 나머지와 맺는 관계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시공을 가로 지르는 상상력의 힘(teleopoiesis)을 요구함.
- 새로운 지역주의는 아리프 딜릭이 말한 비판적 지방주의(critical localism)라 할 수 있음.⁶⁾
- 비판적 지방주의는 일국적 수준의 논리로 등장한 지방주의(지역 중심주의)나 지역불균등론과 달리 전지구적 시스템과의 연관에서 지방을 인식함.
 - 비판적 지방주의에서 지방은 새로운 가치 생성의 공간이며 전통적인 의미인 소외를 나타내는 표지이기보다 새로운 의미에서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진지라 할 수 있음.
 - 비판적 지방주의에서 지방은 전통과 근대, 식민성과 근대성, 문명과 자연 등의 제 가치들이 혼재한 장소이며 서로 양립하는 가치들이 종합되는 가운데 형성적인 가치들이 발생하는 공간임.
 - 일국적 수준을 넘어 전지구적 자본주의라는 세계체제의 전망을 지닌 비판적 지방주의는 자기비판을 가장 중요한 계기로 앞세우는 한편 타자비판으로 이행하는데, 이와 같은 비판의 양날로써 담론의 합리성을 견지함.
 - 비판적 지방주의는 지방이야말로 약속의 땅이자 새로운 이념이 발상하고 퍼지는 전도의 공간이라 생각하며 지방 수준의 역사와 행위가 일국적 사회 시스템 변혁에서부터 세계체제의 개편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연결된다고 인식함.

6) A. Dirlik, *The Postcolonial Aura*, Westview Press, 1997, p. 85.

2. 동아시아 지중해론과 아시아 지중해론

- 브로델의 지중해론은 지역주의(regionalism)와 해역세계론을 형성하였음.
 - 지역주의는 국가중심에서 세계를 국가 간 체제로 나아가게 하였다면 해역세계론은 육역이 아닌 해역의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함.
 - 유럽의 지중해론에 빚댄 동아시아 지중해론과 아시아 지중해론은 한반도와 제주를 다른 시야에서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
- 윤명철의 동아시아 지중해론 : 윤명철은 반도 사관을 비판하고 해륙 사관을 제출함. 그는 반도 사관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고 실제와 맞지 않을뿐더러 학문외적인 의도가 개입돼서 만들어진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고 주장함. 동아시아의 역사상은 역사 활동의 터와 단위를 대륙과 반도, 해양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해륙적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소외되었던 해양의 위상과 역할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동아시아지중해(East Asian Mediterranean Sea)라는 모델을 설정함.
 - 지중해는 일반적으로 2, 3 개의 육지로 둘러싸여 해양으로서는 독립성을 결여하였으며 일반 해양과는 다른 성격이 있음. 지중해는 육지 질서와 해양질서를 공유하고 있음. 각국이 내해를 공유하고 있으며 연안이 여러 나라로 갈라져 해양에 대한 이해관계가 예민하여 해역 지배권의 대립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짐. 또한 이동성이 강하고 국경이 불분명하므로 힘의 균형이 질서구축의 축이 됨. 그리고 비조직적이고 불연속적인 교섭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치 군사보다는 교역 문화 등 이해관계를 중시함. 물론 각각 다른 종족과 문화, 국가와 경제형태가 모이는 공간이므로 활발한 상호교류와 함께 정치집단의 갈등도 심각했음.
 - 동아시아지중해는 다른 해양환경이나 해역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음.
 - 1) 자연환경 : 이곳은 바람이 계절에 따라 일정한 방향을 띠는 계절풍 지역이고 해류의 흐름도 늘 일정한 방향성이 있으므로 해양교류에도 이러한 모습이 반영되고 있음. 또한 육지와 육지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특히 황해는 내해이므로 교류가 용이했으며 활발했음. 해양환경을 둘러싼 육지 환경도 다양하여 초원유목문화, 수렵삼림문화, 화북농경문화, 강남 해양농경문화, 한반도문화, 일본 열도와 동남아 남방문화 등이 만나고 다른 종족들이 바다를 매개로 자주 접촉하였음.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기마병을 동원한 유목종족과 보병을 위주로 하면서 수군을 활용한 농경민의 대결양상을 띠었음. 동아시아중해 지역은 권력을 수반한 힘의 질서에 있어 편중성을 지닌 경향을 보임. 중국 지역이 중심부이고 한반도를 거쳐 일본열도에 가면서 점점 주변부화 함. 그러나 문화는 이와 달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 바다를 가운데 두고 바다 주변의 주민과 문화는 상호영향을 주는 환류 시스템을 이루고 있음.

- 2) 해양환경 : 바다에는 지역 간의 해양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분자로서 해류와 조류, 바람이 있는데, 특히 동아시아의 해양 문화 환경에 영향을 미침. 해류에는 쿠루시오와 그 본류에서 갈라져 나온 지류들이 있음. 동중국해에는 쿠루시오 외에 규슈서안의 쿠루시오 분파가 있고 이 해류에서 갈라져 황해 중앙부로 북상하는 것과 겨울에는 중국 해안을 남하하는 한류가 있음. 그런데 황해, 동중국해의 해류는 바람의 영향, 중국대륙으로부터의 하천수 유입량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변화가 많음. 해류의 흐름은 인간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줌. 때로는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과 문화의 이동을 가능하게 함. 그런데 연안 항해에서 해류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조류임. 특히 한반도의 서남해안과 중국의 동해안은 조류의 흐름이 매우 빠르고 방향의 지역적인 편차가 심함. 조류의 움직임은 고대에는 황해나 남해안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임. 한편 해양환경 가운데 바람은 절대적임. 보통 해류의 영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해류도 폭풍 등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음. 연안항해는 물론 근해항해와 원양항해에서 바람의 이용이란 거의 필수적임. 바람은 표류 등에 의하여 우발적인 교섭을 낳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계기를 만들어 문화의 교섭, 역사적인 사건을 발생시키게 됨. 특히 계절풍은 일

정한 방향성이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동아시아는 계절풍 지대임. 백제의 대중교섭, 왜의 신라침입, 발해의 건일본사, 일본의 건발해사, 경당사 등은 계절풍을 이용하고 있음. 봄에서 여름에 걸쳐 부는 남풍계열의 바람은 중국 남부해안과 한반도 혹은 일본 열도와와의 교류를 가능하게 함. 반면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부는 북풍계열의 바람은 한반도 북부와 중국의 중부 혹은 남부해안의 교류를 가능하게 함. 남풍계열의 바람은 일본열도에서 한반도로의 교류를, 북풍계열의 바람은 한반도에서 일본열도의 남부와 서부해안과의 교섭을 가능하게 함.

○ 프랑스와 지뿌로의 아시아 지중해론(Asian Mediterranean): 그는 황해를 포함해 남중국해, 술루해, 셀레베스해의 해분들을 연결하고 해항도시로 치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싱가포르에 이르는 해양회랑(maritime corridor)을 아시아 지중해로 설정함.

- 그가 아시아 지중해라는 해역을 설정하고 주목하는 이유는 국가적 경계나 국민국가의 범위를 벗어난 글로벌 해항도시들을 핵으로 하면서 트랜스내셔널한 지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 그는 아시아를 국가에 의하지 않고 해항도시를 통해서 설명하려 함. 국가에 덜 포섭되거나 저항하기도 한 해항도시들과 해항도시들 간의 네트워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관, 제휴, 관계, 관행에 주목함.

- 이러한 그의 설명들은 역사적인 사례들을 전제함.

- 1) 지중해와 해양공화국들
- 2) 발트해와 한자동맹
- 3) 남중국해의 해상왕국과 도시국가.

- 프랑스와 지뿌로가 아시아 지중해를 설명하기 위한 시기는 13세기부터 21세기에 이룸. 이는 16세기에서 18세기에 유럽에 의해 만들어지는 특수한 근대세계체제를 포괄함.

- 16세기 이전 아시아 지중해를 이해하는 방식은 조공제도임. 그러나

7) F. Gipouloux, *The Asian Mediterranean: Port Cities and Trading Networks in China, Japan and Southeast Asia, 13th-21st Century*, Edward Elgar, 2011.

그는 송원(宋元) 시대의 조공무역이 중국, 안남, 캄보디아, 자바, 일본, 부르나이, 고려 등 아시아인들은 물론이고 인도, 무슬림, 유럽 상인까지도 포함하며 아시아적 해양질서를 지닌다고 설명함. 이 시기에 비공식적 무역, 사무역, 심지어 해적무역을 통하여 아시아의 해역 시스템이 가동되고 변화한 것임.

- 그는 이러한 설명을 위하여 아시아의 해항도시들을 해역의 형성과 지속의 주체로 간주함. 지중해의 해양공화국과 발트해의 한자동맹은 그의 해설을 뒷받침하는 틀이 되는데 7세기부터 14세기까지 수마트라의 스라비자야 왕국, 1511년 포르투갈에 의해 점령되기 전 15세기의 말라카,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일본과 중국의 주요 교역지가 되었던 류큐섬의 나하, 오사카만에 위치한 일본의 항시 사카이, 1661년부터 1663년까지의 강력한 상인가문인 정씨 지배하의 타이완 등은 해역의 네트워크를 이룬 사례들로 제시되고 있음.
- 이처럼 아시아의 해항도시들은 사회 경제적인 자율성을 지니고 해역 네트워크를 이루었음. 하지만 서구 제국주의의 도래와 함께 위축되고 이후 국민국가의 국민경제 속으로 편입되어 버림.
- 그렇지만 21세기 세계화는 다시 아시아 해항도시가 자율성을 회복하고 일정한 해역의 주체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음.

3. 해역세계와 해항도시 네트워크론

- 하마시타 다케시의 바다의 아시아론 : 바다가 지구 표면적의 72%라면 지구가 아니라 수구 또는 해구라는 표현이 적합함. 고대부터 아시아의 바다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인 동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해역과 인도양, 홍해를 거쳐 아프리카 동쪽 해안선까지 지구 둘레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바다가 지닌 가치를 지속적으로 육지에 제공해 왔음. 이러한 점에서 바다의 아시아라는 패러다임이 제시될 수 있음.
- 하마시타 다케시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세 가지 메시지를 지닌다고

주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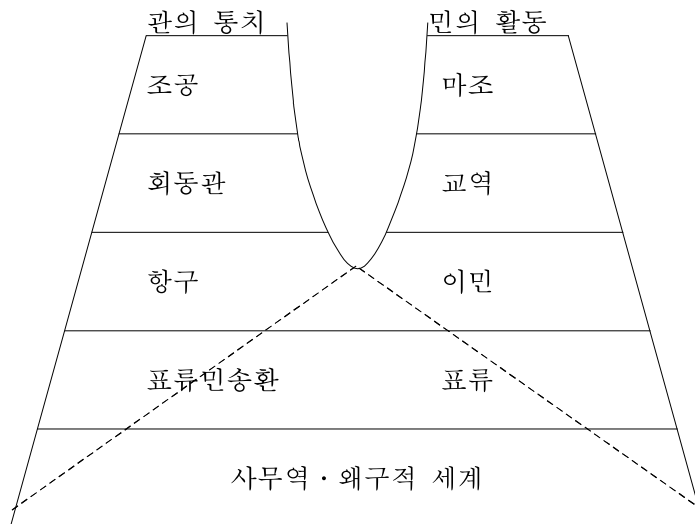
- 1) 아시아와 세계, 자연, 역사, 문화의 관계를 바다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음.
 - 2) 그동안 육지 중심으로 바라본 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바다를 중심으로 재해석할 수 있음. 바다라는 관점에서 아시아를 볼 때 지금까지의 유럽상이나 동서관계론에는 수정이 불가피함.
 - 3) 바다와 육지의 환경구조를 연구하려는 의미를 지님. 아시아의 바다는 해류와 계절풍을 특징으로 하며, 이 해류와 계절풍이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 또한 아시아의 모든 해역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육지와도 관계되어 있어 바다와 육지가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만들어 왔음. 이러한 점에서 해역과 해역이 관련된 지역들이 서로 역사적인 연속성을 가지면서 동시대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함.
- 그런데 근대과학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의 안녕과 국익이라는 현실성에 기초하여 개별 국가에 봉사하는 국학(國學)이라고 할 수 있음. 반면 해학(海學)은 국학에 의해 제한된 영역을 초월하여 국가의 범위를 상대화시킴. 또한 국익을 기본으로 하는 해양국가의 관점에 경종을 울리고 인류사의 관점에서 지구와 지구 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지구론을 목표로 함.
 - 바다라는 공간은 광역지역을 구성하는 다문화, 다민족, 다권력의 상호관계를 형성시켰으며, 대량의 물자나 인원 수송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임.
 - 바다를 중요한 주체로 인식했던 동아시아는 다민족, 다문화, 다지역으로 구성된 하나의 정치 공동체임. 이 지역이 지닌 다원성은 여러 지역과 함께 어우러져 해역의 역동성을 창출해 왔음.
 - 한편 섬들은 영역으로서 스스로를 표현하기보다 해역의 다른 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스스로를 유지시켜 왔음.
 - 하지만 국가라는 상위 개념이 설정되면서 섬 자체도 국가체제를 정비하게 되었고, 바다의 시점에서가 아니라 육지의 연장으로써 해역

- 을 분할하고 권위와 권력이 섬을 장악하게 되었음.
- 그러나 바다가 역사 속에서 인간 사회와 다양한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해왔다는 점을 인식할 때 국가와 바다의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음.
 - 한편 하마시타 다케시는 해역세계가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됨을 주장하고 있음.
 - 1) 연안 지역으로 바다와 육지가 교섭하는 지역과 해역
 - 2) 연해의 해역 지역을 구성 요소로 하여 형성된 환해(環海) 해역 세계 : 이곳에는 해역을 중심으로 그 가장자리에 교역항과 교역 도시가 형성되어 있음
 - 3) 해역과 해역을 잇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형성된 항만 도시 :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매개로 하여 서로의 해역을 연동시켜 보다 다각적이고 광역적인 해역 세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류큐의 나하와 광둥의 광저우, 마카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와 이 도시들을 대신한 홍콩 등.
 - 1) 연해(沿海) 2) 환해(環海) 3) 연해(連海)에 의해 성립된 해역 세계는 육지와 달리 다원성, 다양성, 포괄성을 지닌 개방적이고 다문화적인 세계임.
 - 하마시타 다케시의 해역 세계론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섬에 관한 관점. 그는 해양의 관점에서 보면 섬은 항만이며 이동과 집산이 활발한 네트워크 센터라고 주장함.
 - 섬들은 서로 연관성을 지니며 도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교역과 이민을 활성화함. 예를 들어 류큐의 나하를 중심으로 한 배후 해역 관계는 동쪽으로는 태평양 제도, 북쪽으로는 규슈에서 한반도, 또는 규슈에서 서일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서쪽은 푸젠성 푸저우를 중심으로 하는 화남 연해 일대, 남쪽으로는 타이완 동부에서 필리핀에 이르는 경로의 동쪽 선으로, 또는 타이완 해협을 지나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경로의 서쪽 선으로 함.
 - 그럼에도 지금까지 섬 지역의 역사는 변경사, 주변사로 취급받아 왔

음. 이에 대하여 하마시타 다케시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음.

- 1) 국가 영역에서 균일성과 균질성이 이념으로 강조될 때 주변 지역, 특히 섬 지역은 다른 지역 특히 본토와의 차이에서 후진성을 지적받았음.
 - 2) 국가의 중심성, 중앙성, 구심성이 강조되고 목표가 된 결과, 주변 지역이 유지되고 있던 독자성은 균질화의 대상이 되기보다 오히려 중앙에서의 원조나 보조의 대상이 되어버린 주변 정책사에 기인함.
- 여기서 하마시타 다케시는 “하지만 주변사나 변경사를 중심에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시점에서 본다면 어떠한 역사적 견해가 발생할까?” 라는 질문을 던짐.
 - 주변이나 변경은 다른 문화와 접촉하며 상호 교류의 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다른 문화와 교섭의 장을 형성한 개척자라 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바다 주민과 육지 주민의 교섭과 충돌이 일어난 장을 “사무역·왜구적 세계”라 지칭함. 이는 해역을 이용한 교역 네트워크의 가장 밑자리를 형성함. 그에 의하면 해역세계에서 관의 통치와 민의 활동은 다섯 층위를 구성함.

<표 3> 해역통치의 다층 구조



- 하네다 마사시의 해역세계와 해항도시론⁸⁾ : 하네다 마사시는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세계화하고 변화무쌍하며 상호 연결된 세계의 현실에 타당하고 부합하는 새로운 세계사 모델로 1990년대 이래 제시된 해역세계라는 개념을 강조함.
- 그는 특히 17세기와 18세기 복수의 아시아 해역세계에서 활동한 많은 행위주체들에 관심을 기울임. 이 당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아시아 해역에서 활동한 여러 집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임.
 - 해역세계란 그 중심에 바다를 가진 권역을 의미함. 종족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단층들은 항상 정치적 영토와 일치하지 않음. 이러한 점에서 해역세계란 국민국가라는 딱딱한 틀에 비해 외부로 넓게 열려있는 느슨한 지리적 단위임.
 - 이것은 역사가들이 온갖 종류의 이문화간 접촉과 다양한 경제와 문화 활동에 대한 정치권력의 영향을 검토, 분석하고 종합해야 하는 일종의 작업장임.
 - 여기서 각각 특정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태평양, 지중해, 대서양 해역세계들과 연결된 아시아 바다의 몇몇 해역세계들을 가정할 수 있음.
 - 이는 특정한 해역세계의 연대기적 역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일과 무관함. 해역세계라는 틀을 이용하여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강력한 국가사 서사(national history narrative)를 상대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사람들의 삶과 활동을 특정한 민족의 경계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조명해 보는 효율적인 수단임.
 - 하네다 마사시는 그동안 전개된 해역세계론이 아시아 해역세계를 단일한 지리적 단위로 다루고 있는 데 대하여 비판함.
 - 그는 이분법을 경계하면서 지중해 해역세계에 대한 비교에 만족하지 않고 “해로로 서로 연결되고 관련을 맺는 이웃한 나라들을 가진

8) Haneda Masashi, *Asian Port Cities 1600-1800*, Nus Press Singapore, 2009.

- 지리적, 지정학적 영역 내에서 교류의 역학을 특징짓는 것으로” (앙겔라 쇼텐 함머) 해역세계의 개념을 받아들임.
- 다시 말해서 그에게 해역세계는 폐쇄적인 지리적 범위를 가정하지 않는 데서 의의를 가짐. 따라서 항상 세계사와의 연관 속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것임. 이러한 점에서 그는 분석의 대상을 해항도시들로 삼음.
 - 해항도시는 세계의 도처에서 발견되는 도시 유형. 기차와 자동차, 항공기의 시대 이전의 해항도시는 중요한 정치적 중심지였고 지역 경제의 허브였으며 해외와 국내 문화들의 용광로 속에서 새로운 예술, 사상과 기술이 발전하던 장소였음.
 - 한 해항도시는 각 나라에 속하지만 동시에 자신과 접하고 있고 자신을 외부세계와 연결하는 해역세계에 속함.
 - 해항도시는 자신이 속한 나라의 지역문화를 표현하지만 또한 그것은 외국인과 외국문화의 존재로 인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낯설어 보이기도 함.
 - 해항도시는 온갖 이문화가 교류하는 곳이며, 당연하게도 역사가들과 다른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학자들에게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됨.
 - 이러한 관점에서 하네다 마사시는 아시아 해항도시들에서의 이문화 간 접촉이 갖는 여러 측면들을 비교하였음. 그리고 주요 분석 테마로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삼음.
 - 1) 해항도시에서 동인도회사 소유 요새와 상관의 위치와 소유권 그리고 건축적 특징들.
 - 2) 유럽인과 해항도시 지역민 사이의 의사소통.
 - 3) 무역방법과 다양한 절차들.
 - 4) 유럽인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유럽회사들의 상관들과 각자 통치자의 지배를 받던 지역 토착민이 연루된 분쟁과 사고들의 법적 해결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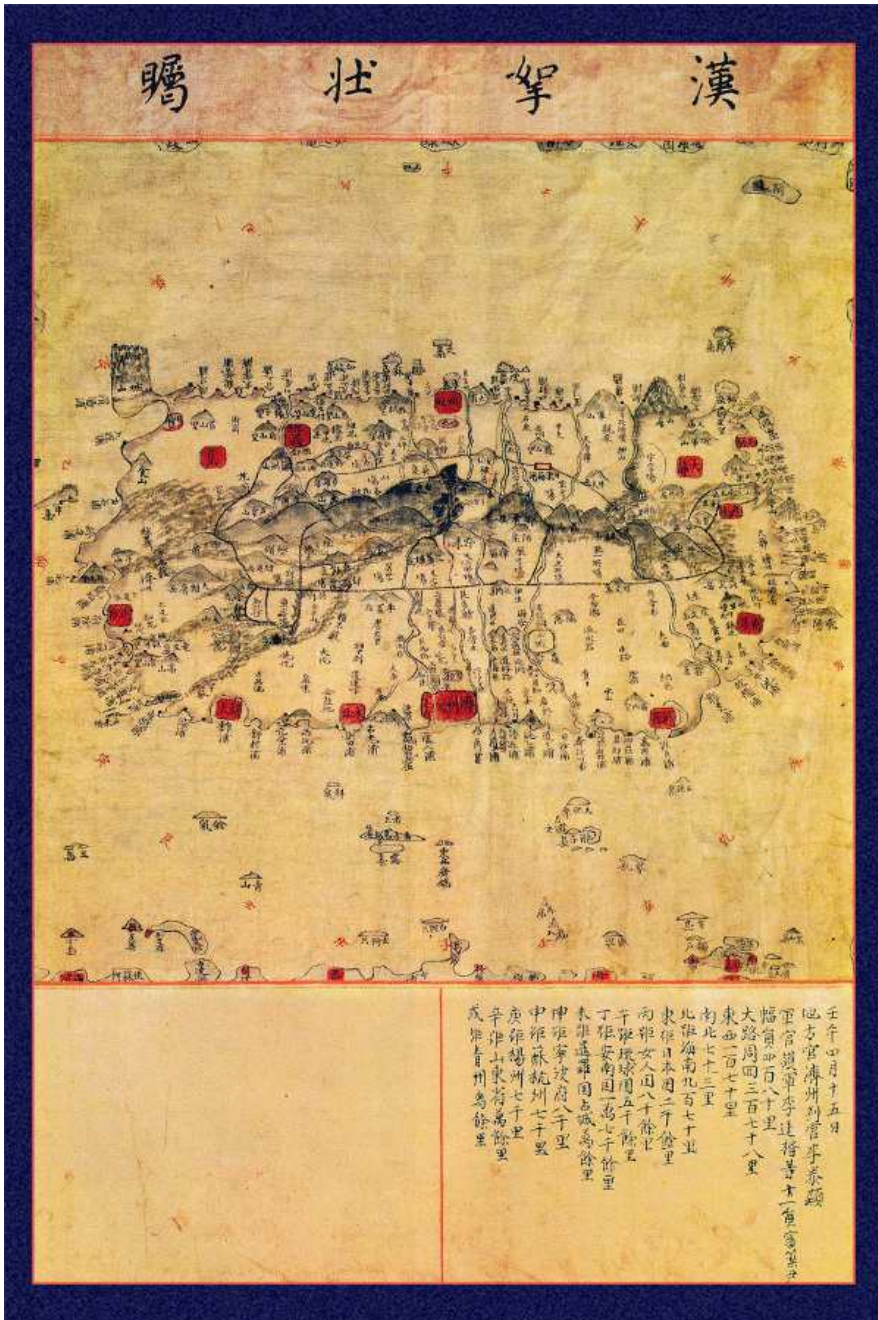
- 5)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 특히 유럽인과 같은 외국인 남자와 토착민 여자 사이의 관계, 해항도시에 타종족 출신 부모를 가진 아이들의 사회적 지위.
 - 6)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 아시아 해항도시들에서의 문화 교류들, 즉 외국의 의복, 음식, 기술, 예술 그리고 생각(종교, 사상을 포함하여)의 수용 또는 거부.
- 그의 분석은 주로 동인도회사를 매개로 한 유럽인과 아시아인들 사이의 문화교섭(cultural interactions) 과정임. 하지만 그의 분석 틀은 해역의 해항도시와 섬의 문화교섭 양상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임.

IV.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 방법론

1. 제주학과 해역세계

- 세계화와 로칼리티에 대한 연구의 진전을 수렴하면서 로칼 영역을 바라보는 시각을 먼저 교정하여야 함. 2000년대에 이르러 전지구적 차원의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중심보다 다양한 주변들에 대한 관심이 비등하면서 각 로칼 지역들이 지닌 내발적 역량들이 강조됨. 다시 말해서 중심부로부터 대타화된 지역이 아니라 지구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구체적 장소로서의 지역 개념이 대두한 것임.
- 제주는 국가의 주변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국가와 세계를 향한 열린 지역임. 그동안 많은 논의에서 제주는 일국 단위에서 논의되었음. 따라서 지방적인(local) 것이 주된 대상이며 세계적인(global) 것과 지방적인 것이 만나는 지역적(regional) 공간에 대한 논의는 부차적임. 제주연구가 지방주의적 경사를 보여 왔음.
- 비판적 지방주의는 로칼리티를 지역주의로 재해석하는 과정. 비판적 지방주의의 제주학은 자기중심의 인식을 비판함과 동시에 국가중심의 해석을 극복함. 이러한 과정에서 해역세계는 새로운 해석지평으로 다가옴.
- 동아시아 지중해론(윤명철), 아시아 지중해론(F. Gipouloux), 해역세계론과 해역 아시아론-바다의 아시아론(하마시타 다케시) 해항도시 네트워크론(하네다 마사시), 21세기 네트워크 도시(섬)론 등을 통하여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임.

<그림1> 탐라순력도 한라장축



- 18세기 초 제주도의 관아와 성읍, 군사 시설과 지형과 풍물에 대한 여러 도상으로 묶인 김남길의 “탐라순력도”에는 제주도 해역세계에 해당하는 “한라장축”이 있음.

- 이 그림은 제주를 가운데 두고 한반도 남해안 일대, 중국의 영파 · 소주 · 양주 · 산둥, 일본과 유구, 안남, 말라카 반도 등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해역의 제주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었음을 시사함.
-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은 제주가 지닌 로칼의 역사적 위상학에 기반하면서 해역세계(maritime world)의 네트워크성에 주목함.
- 이러한 네트워크성은 해양을 통한 교역과 교류를 제주학의 기초로 삼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제주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네트워크를 재해석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나아가 21세기 “네트워크 섬(도시)”으로서의 제주에 대한 전망을 고찰함.
-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기왕의 연구에서 해역세계 속의 제주에 대한 성과들을 정리하여 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음.
- 1) 제주의 역사와 해역세계 연관성 : 해역세계 속의 ‘탐라’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일정한 준거를 마련하는 일.
 - 2) 해역세계에서의 교역과 교류 : 교역과 교류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자료는 많지 않지만 이를 정리할 수 있다. 전근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와 제주의 교역에 대하여 검토하는 일.
 - 3) 해역세계에서 파생된 표해와 표류의 역사 : 제주가 지닌 해역세계적 위상을 살피는 데 유익함.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표류와 여타 지역에서 제주로의 표류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근대 이전의 교역의 루트를 이해하는 보조 자료가 되고 표류민 처리를 둘러싼 해역세계 여러 지역의 장치들을 통하여 해역네트워크를 알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하멜의 표류를 적극적으로 해석. 그는 동인도회사 직원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지중해에서 나가사키 중계 무역을 이야기하는 기호임.

- 4) 섬 네트워크와 제주 : 오끼나와 등 다른 섬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해역세계 속의 제주를 이해함.
- 5) 해역세계와 다양한 문화접변과 문화교섭 : 자유로운 교역에서 조공체제로 그리고 국가에 복속되면서 교역 시스템의 변화가 제주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살펴볼 수 있을 것, 타자와 주체의 문화교섭(cultural interactions)에 대하여 주목, 제주는 다문화와 문화혼종의 공간. 습합과 혼종이라는 서로 다른 분석 방식을 동원하여 제주 문화의 특성을 알 수 있음.
- 6) 근대 제국 지배기 제주의 향로와 인적 물적 교류 : 제주와 오사카의 교류와 재일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제주 오사카 향로를 통한 이주와 국제적인 노동 분업.
- 7) 내국 이민과 해외 이민으로서의 제주민 네트워크 : 잠수의 이동과 이주 등을 이해.
- 8) 타자의 시선에 비친 제주 : 내륙 조선의 유배인들이 본 제주와 제주민, 하멜 표류기를 위시하여 독일인 지그프리트 겐터 등이 본 제주와 제주민. 유배서사와 기행서사(travel narrative)에 나타난 제주 표상을 재해석함으로써 타자화되는 제주에 대한 접근이 가능.
- 9) 다양한 재현에 나타난 해역세계의 제주 : 제주 출신 작가들의 글쓰기(현기영, 최근 조중연의 소설 “탐라의 생활사” 등)와 해방 이후 귀환자 서사 그리고 제주 출신 자이니치(在日)의 글쓰기(재일 제주 작가와 재일제주인의 생활사)에 나타난 제주 표상, 김영갑의 사진과 강요배 그림 등이 접근하는 시선의 차이, 이민자가 본 제주.
- 10) 제주 네트워크의 역사적 변화과정 : 21세기 제주의 미래학과 연관됨. 공도정책을 펼친 조선시대, 일제시대, 태평양전쟁(대동아전쟁)과 해방기, 한국전쟁시기, 근대 국민국가 내부와 외부 등 다양한 네트워크 양상을 살핌으로써 제주가 해역세계의 진정한 주체가 되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 21세기 오끼나와 대만으로 이어지는 섬 네트워크.
- 11) 해역세계 제주와 평화도시 구상 :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는 지역민,

제주의 제주성(Jejuness)은 역사적 구성물, 문화적인 교섭과 혼종화 등 다양한 양상을 살핌으로써 향토주의적 단일성 담론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 평화도시 제주 구상(환태평양 평화공원 운동)과 연루된 네트워크의 가능성이 있음.

- 지역적인 세계체제 속에서 제주, 쓰시마, 오키나와, 대만 등 해역의 여러 local 영역의 활동, 섬 네트워크를 역사적으로 살펴(기존의 시좌와 다른, “주변에서 보는 동아시아론-최원식, 백영서 등”) 그 의의를 부각한다면 21세기 초국적 시대를 맞아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이 가지는 의의를 규명할 수 있을 것임.

2.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의 사례

- 제주와 제주민의 정체성을 해역세계와 연관시켜 “해민의 공간” 혹은 “해민정신”의 세계로 이해한 이는 송성대, 고용희, 주장현, 이영권 등이 있음.
- 송성대는 육역 사회와 해역 사회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육역 사회	해역 사회(제주)
동족취락의 족당사회 논농사지대 문화 빈부격차가 뚜렷한 소강사회 선비정신	혼성취락 개인능력이 생산량을 좌우하는 해민문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체적 대동사회 해민정신

“주지하다시피 동족취락의 족당사회를 이루었던 논농사지대의 문화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문화로서 그곳은 빈부귀천의 차가 뚜렷한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이루고 있었다. 즉 거기에는 오늘날 민중이라 할 다수의 소작인이 오만한 양반 지주에 의존하여 ‘굴종(屈從)’의 삶을 살아온 전통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혼성취락 그리고 균분상속제에 의한 개체적 대동사회(個體的 大同社會)를 이루었던 제주는 그와 달리 굴종보다는 자존적 ‘경쟁(競爭)’의 삶을 살아 온 자작농의 전통

이 있다. 더욱이 개인의 능력에 의해 생산량이 극히 좌우되는 해민(海民 : 海商과 浦作人)의 해산활동(海産活動)이 더해지면서 제주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그래서 공정하고 건강한 경쟁의 문화가 항존할 수 있었다. 사실 민주화되었다는 오늘날까지도 한반도에는 유감스럽게 족당문화의 의식과 형태가 불식되지 않아 소위 의존적 굴종의 문화로서 천민자본주의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주는 자존적 경쟁의 문화를 가져 평민민주주의가 일찍부터 싹터왔다는 것이다.” 9)

- 송성대는 해민정신(seamanship)을 제주 정신문화의 재창조[르네상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문맥화 함. 해민정신이 곧 제주정신, 제주이즘이며 이는 곧 개체적 대동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임.
- 송성대의 해민정신론은 해역세계 시좌를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전제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음. 그가 글로칼리제이션 시대에 상응하여 해민정신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중적 스케일을 염두에 두고 육역과 다른 인식을 보인 것이라 하겠음.

○ 고용희는 제주를 “횡적인 사회구조를 기조로 하는 해양문화국가”에 연원한다고 말하고 있음.

“탐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횡적인 사회구조를 기조로 하는 해양문화국가의 역사이다. 그들은 광활한 해역에서 역동적으로 모험하며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면서, 재화를 획득하고 자유를 위해 투쟁한다. 그러므로 종적이며 통제적인 내륙 국가 문화와는 필연적으로 충돌하기 마련이다.”

“탐라는 태고의 시대로부터 바다를 통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와 교통하였던 위대한 해양국가였다.”

“탐라의 역사는 조선 유교 사슬에 얽매인 역사관에서 벗어나 세계사의 큰 맥락에서 접근해야만 역사의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 10)

9) 송성대, 『제주인의 해민정신』, 제주문화, 1996.

- 고용희의 제주사 인식은 “바다에서 본” 해역세계의 시좌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는 해양국가 ‘탐라’의 교역과 교류에 대하여 탐문하면서 조선시대의 위축된 제주를 넘어서 21세기 해역세계 속의 제주를 대망함.

○ 주장현은 고대 제주에 대한 재인식을 통하여 현재의 제주를 다시 이해하자고 제안함.

- “서북 이야기” (『삼국지』와 『후한서』)를 통하여 중국-제주-일본을 잇는 고대의 바닷길을 알 수 있어 제주는 변방이 아니라 “해양세계의 징검다리”였음을 규명.

- 탐라는 한나라와 교역하고(『삼국지』와 『후한서』 동이전) 당에 조공사신을 파견한(『당회요』) 소국가였음.

○ 이영권은 ‘국사’라는 국가주의 혹은 중앙주의의 역사가 아니라 지방의 역사를 지방의 시각으로 서술할 것을 주창함, 이는 앞서 말한 ‘비판적 지방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음.

“지방의 역사는 교과서의 역사와 많이 다릅니다.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건 단지 국가권력을 장악한 중앙 세력들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속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 삶이 없습니다. 국가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역사, 중앙 지배계급의 입장이 철저히 녹아있는 그런 역사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간혹 국사 교과서에 지방 이야기가 등장해도 그것이 지방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죽는 겁니다. 국가라는 허우대는 있는데 속살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서울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이런 생각까지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변방 중의 변방인 제주에 사는 역사 선생이라서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서울에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10) 고용희, 『바다에서 본 탐라의 역사』, 각, 2006, pp. 5-8.

런데도 왜 학교에선 중앙중심의 획일적인 역사만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지방사람들의 역사는 그 구체적 삶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11)

- 이영권은 지방민의 시각에서 새로 쓰는 지방사로서의 제주학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자기를 다시 쓰는 가운데 제주학과 해역세계 시좌가 만나게 됨.

3.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의 양상

○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은 대략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내용으로 함.

- 제주의 역사와 해역세계 연관성
- 해역세계에서의 교역과 교류
- 해역세계에서 파생된 표해와 표류의 역사
- 섬 네트워크와 제주
- 해역세계와 다양한 문화접변과 문화교섭
- 근대 제국 지배기 제주의 항로와 인적 교류
- 내국 이민과 해외 이민으로서의 제주민 네트워크
- 다양한 재현에 나타난 해역세계의 제주
- 타자의 시선에 비친 제주
- 제주 네트워크의 역사적 변화과정
- 해역세계 제주와 평화도시 구상

○ 제주의 역사와 해역세계의 연관성

- 탐라국 형성과 소멸의 역사를 통하여 제주가 본디 해역세계 속에서 활동한 해양국가였음을 알 수 있음. 고용희, 주강현, 이영권 등의 연구는 탐라의 영역이 한반도 남해안 지역을 포함하고, 교역의 범위가 중국의 명주와 일본의 구주 그리고 유구(琉球)에 이르렀음을 말함.
- 고용희는 “탐라의 역사는 바다의 역사” 라고 전제하며 그 증거로

11)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p. 7.

신숙주의 『보간재집』에 전하는 내용과 『탐라순력도』의 첫머리에 있는 「한라장축」을 증좌로 들. 신숙주의 『보간재집』에 “주의 서쪽은 중국의 명주에 다다르고, 동으로는 일본의 구주에 이르며, 남쪽으로는 유구제도에 통한다”라는 구절이 있고, 「한라장축」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바다의 주변에 안남, 교지, 말라카, 영파, 소주와 항주 등을 그리고 있어 해역세계의 제주에 대한 인식이 조선조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주장현은 “중국-일본-한국사에서” “대만-류큐-제주사로” 나아가 제주를 해역세계 속에서 이해하자고 제안함. 이는 앞서 지방사의 재인식이라는 관점과 맞물리면서 민족국가의 틀 속에 갇혀 왜곡된 제주를 다시 보자는 것임.
- 주장현의 시각은 “주변에서 보는 동아시아”라는 최원식과 백영서의 시좌와 맥을 같이 함. “한국의 일반사에 대한 제주사, 중국의 일반사에 대한 대만사, 일본의 일반사에 대한 류큐사가 필요한” 데, 이는 곧 해역세계의 역사와 일치함.
- 윤명철은 동아시아중해 국제항로 가운데 남해권 항로로 남해동부-대마도 경유-큐슈북부 항로, 남해서부-큐슈서북로 항로, 제주도-일본열도 항로, 제주도-오끼나와 항로 등을 제시하고 있음.¹²⁾ 이들 항로가 조선조까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해역세계 속의 제주를 실감하게 함.

○ 해역세계에서의 교역과 교류

- 제주는 탐라 형성기부터 해역을 통하여 교역과 교류를 지속해 왔음.¹³⁾ 문헌과 유적, 유물은 한반도 남해안과 중국과 일본 등 다양한 루트의 문물이 유입되었음을 전함.
- 탐라 형성기 이전 제주도를 지칭하는 이름인 주호(州胡)가 한반도와 중국을 배를 이용하여 교역하였음. 삼양동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제주가 한반도 서해 남부의 연안 항로를 중심으로 중국 또는 낙랑, 대방, 삼한, 왜 사이에 이루어진 교역에 참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12) 윤명철, 『해양사연구방법론』, 학연문화사, 2012, pp. 214-217.

13) 안경숙, 「바다를 통해 교류된 한국 고대 문물」, 『항해와 표류의 역사』, 솔, 2003, pp. 259-266.

- 탐라 시기의 제주는 신라와 고구려 그리고 중국과 교역하였고 이는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까지 지속됨. 사방 어느 거리에서나 항해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제주는 해양 교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다음은 각 시기별 수입품과 수출품을 정리한 것임.

<표 4> 시기별 교역 내용

시기	수입품	수출품	문헌/유적/유물
청동기 시대	토기, 석기		삼양동 유적과 유물
탐라시기	철, 철제 생활도구, 구리제품, 도자기, 도기, 쌀, 소금, 약재, 비단	가(珂:어패류로 만든 장식품), 탐라복(전복), 탐라방보(말린 고기), 꿀, 해산물, 축산물	용담동 고분, 광지 조개무지, 고내리 유적,

○ 해역세계에서 파생된 표해와 표류의 역사

- 항해와 표류는 해역세계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양상인데 제주는 동아시아 해역세계의 한 결절지가 됨. 신화와 전설이 전하는 해역세계와의 상관성은 탈해왕 신화, 연오랑 세오녀 전설, 허황옥 전설 등 한반도 도처에 있음. 하지만 표해와 표류 이야기가 제주만큼 많지 않음.
- 제주 신화와 전설이 전하는 표류 이야기는 개국 신화에 등장하는 벽랑국의 세 공주(『고려사』)와 제주 신들의 총 본산격인 송당 본향당의 금백조 여신과 그의 아들, 어부들에게 풍요와 구원의 신으로 신앙되는 영등할망 등 많은 신들이 표류를 통하여 제주를 오가고 그를 통해 신격화되었음.
- 제주도 바다 저 너머에 있다는 이어도 전설과 김복수라는 사람이 안남에 표착했다가 돌아온 이야기가 담긴 민요인 ‘오돌또기’ 노래도 해역세계의 표류와 연관됨. 오돌또기 민요에 담겨있는 설화 : 임진왜란 무렵 한 어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태풍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표류해온 이란 여인을 만

나 백년간약을 맺고 3남 3녀를 두게 됨. 그러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조금도 식지 않아 일본 사자의 귀로에 동승하게 되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제주도로 돌아옴. 고향에는 돌아왔으나 안남에 두고 온 처자 생각이 또 간절하여 높은 오름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며 이 오돌또기를 불렀다 함.

- 표류의 경험을 기록한 표해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¹⁴⁾

1) 지은이와 기록 형태에 따른 표해록

가. 조난자가 쓴 표해록

- 최부의 『표해록』
- 이지항의 『표주록』
- 장한철의 『표해록』
- 최두찬의 『승사록』
- 이종덕의 『표해록』
- 풍계현정의 『일본표해록』

나. 정부 관료가 적은 표류기 : 국왕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사행록, 개인 문집에 실린 것.

- 만년과 정록의 표류기
- 양성과 고석수의 표류기
- 초득성의 표류기
- 김배회의 표류기
- 김비의와 강무와 이정의 표류기
- 이섬의 표류기
- 장희의의 표류기
- 김기손과 만주의 표류기
- 강연공의 표류기
- 박손의 표류기
- 이방익의 남유록
- 김광현 일행의 탐라표해록
- 제주 사람 33인의 제주표인문답기

14)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3, pp. 31-41.

다. 제 3자가 펴낸 표해록

- 편자 미상의 『해외견문록』에 실린 김여회의 표해록
- 위와 같은 책에 실린 이계민의 표해록
- 김수증이 『곡운집』에 실은 법성의 표류기
- 정운경이 『탐라문견록』에 수록한 제주인의 표류기
- 정약전이 쓴 것을 이강희가 『유암총서』에 넣은 문순득의 『표해시말』

2) 표류 지역에 따른 표해록의 종류

가. 중국으로 표류한 경험을 적은 표해록

- 최부의 『표해록』
- 김배회의 표류기
- 이섬의 표류기
- 김기손과 만주의 표류기
- 이방익의 남유록
- 최두찬의 『승사록』
- 김광현 일행의 탐라표해록

나. 대만으로 표류한 경험을 적은 표해록

- 윤도성의 표류기
- 송완의 표류기

다. 일본으로 표류한 경험을 적은 표해록

- 장회이의 표류기
- 강연공의 표류기
- 법성의 표류기
- 우빈의 표류기
- 이지향의 『표주록(이지향표해록)』
- 강두추와 고수경의 표류기
- 제주 대정현 관리의 표류기
- 이계민의 표해록(기일본표환인어)
- 산해의 표류기
- 원구혁의 표류기

- 김시위의 표류기
- 이기득의 표류기
- 이건춘의 표류기
- 고완의 표류기
- 풍계 현정의 『일본표해록』

라. 유구로 표류한 경험을 적은 표해록

- 만년과 정록의 표류기
- 양성과 고석수의 표류기
- 초득성의 표류기
- 김비의와 강무와 이정의 표류기
- 박손의 표류기(유구풍토기)
- 김여휘의 표해록(기유구표환인어, 김여휘등표해록)
- 김일남과 부차웅의 표류기
- 장한철의 『표해록』
- 문순득의 『표해시말』
- 제주 사람 33명의 제주표인문답기

마. 안남(베트남)으로 표류한 경험을 적은 표해록

- 김대황의 표류기
- 고상영의 표류기

- 한국 표해록은 출항과 표류 과정이 제주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1) 출항이 제주인 표해록

- 양성, 고석수등 10명의 표류기(1456, 세조실록)
- 김비의, 강무, 이정 등 8명의 표류기(1477, 성종실록)
- 이섬, 김효반 등 47명의 표류기(1483, 성종실록)
- 최부 등 43명의 『최부표해록』 (1488, 해외견문록)
- 장회이의 표류기(1499, 연산군일기)
- 김기손, 만주 등 12명의 표류기(1534, 중종실록)
- 강연공 등 19명의 표류기(1539, 중종실록)
- 김여휘의 표해록(1662, 해외견문록 등)

- 우빈 등의 일본국 표류기(1679, 탐라견문록)
- 김대황 등 24명의 표류기(1687, 지영록, 탐라견문록, 주영편, 해외문건록)
- 고상영 등 24명의 표류기(1687, 탐라견문록)
- 강두추, 고수경 등 54명의 일본국표류기(1698, 탐라견문록)
- 산해 등 39명의 일본국표류기(1704, 탐라견문록)
- 이기득 등 25명의 일본국표류기(1723, 탐라견문록)
- 이건춘 등 60명의 일본국표류기(1724, 탐라견문록)
- 김일남, 부차웅 등 9명의 유구국표류기(1726, 탐라견문록)
- 고완 등 20명의 일본국표류기(1729, 탐라견문록)
- 윤도성 등 30명의 대만표류기(1729, 탐라견문록)
- 송완 등 30명의 대만표류기(1729, 탐라견문록)
- 장한철의 표해록(1770)
- 이방익 등 8명의 남유록(1796, 연암집)
- 최두찬 등 51명의 승사록(1818)
- 김광현 등 7명의 탐라표해록(1828, 심전고)
- 제주 사람 33인의 제주표인문답기(1831, 연원직지)

2) 표류과정에 제주를 거치는 표해록

- 양성, 고석수등 10명의 표류기(1456, 세조실록)
- 초득성 등 8명의 표류기(1461, 세조실록) : 나주 출항
- 김배회의 표류기(1470, 세조실록) : 한양 출발
- 김비의, 강무, 이정 등 8명의 표류기(1477, 성종실록)
- 최부 등 43명의 『최부표해록』 (1488, 해외견문록)
- 장회이의 표류기(1499, 연산군일기)
- 김기손, 만주 등 12명의 표류기(1534, 중종실록)
- 강연공 등 19명의 표류기(1539, 중종실록)
- 김여회의 표해록(1662, 해외견문록 등)
- 우빈 등의 일본국표류기(1679, 탐라견문록)
- 김대황 등 24명의 표류기(1687, 지영록, 탐라견문록, 주영편, 해외문건록)

- 고상영 등 24명의 표류기(1687, 탐라견문록)
 - 강두추, 고수경 등 54명의 일본국 표류기(1698, 탐라견문록)
 - 대정현 관리 등 42명의 일본국 표류기(1701, 탐라견문록) : 여수 출항
 - 산해 등 39명의 일본국 표류기(1704, 탐라견문록)
 - 원구혁 등 28명의 일본국 표류기(1720, 탐라견문록) : 흑산도 출항
 - 이기득 등 25명의 일본국 표류기(1723, 탐라견문록)
 - 김시위 등 26명의 일본국 표류기(1723, 탐라견문록) : 순천 출항
 - 이건춘 등 60명의 일본국 표류기(1724, 탐라견문록)
 - 김일남, 부차웅 등 9명의 유구국 표류기(1726, 탐라견문록)
 - 고완 등 20명의 일본국 표류기(1729, 탐라견문록)
 - 윤도성 등 30명의 대만 표류기(1729, 탐라견문록)
 - 이방익 등 8명의 남유록(1796, 연암집)
 - 최두찬 등 51명의 승사록(1818)
 - 김광현 등 7명의 탐라표해록(1828, 심전고)
 - 제주 사람 33인의 제주표인문답기(1831, 연월직지)
- 제주에서 출항하여 표류하는 경우 추자도나 추자도 인근 초란도를 거치는 경우가 많음. 출항과 표류가 대부분 제주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한편으로 제주 해역의 특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표류의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 안남과 류큐 등 넓은 해역과 만나게 됨을 알 수 있음.
- 외국인의 제주 표류에 대한 사실 또한 해역세계의 제주를 이해하는 자료가 됨.
- 얀 얀스 벨테브레(박연) : 네덜란드 동인도연합회사의 범선인 홀란디아호에 승선하여 1627년 우베르케르크호로 옮겨 타고 일본으로 향하던 중 조선에 표착. 표착 시기는 1627년이나 표착 장소는 제주, 경주, 호남 등 논란이 있으나 제주일 가능성이 높음.

- 핸드릭 하멜 : 네덜란드 동인도연합회사의 무역선 스페르웨르호를 타고 타이완을 출발하여 일본의 나가사키로 향하다 1653년 제주 해안—차귀진하 대야수 연변에 표착하였음. 1653년 7월 24일 제주에 표착한 하멜 일행은 당초 64명 가운데 남은 36명으로 1654년 4월 26일을 전후하여 4척의 배에 실려 한양으로 압송되었음. 그로부터 13년 후인 1666년 8월에 생존자 16명 가운데 8명이 전라도를 탈출하여 일본의 가미고토의 나마 포구에 닿았음.
- 제주에 표착한 일본인과 류큐인
 - 1821년 8월 현재 지명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일본 사쓰마의 장삿배를 타고 사쓰마 출신 일본인 22명과 류큐인 20명이 표착하였음.¹⁵⁾ 사쓰마번의 무역품을 싣고 아마미오시마를 출발하여 사쓰마 영내의 야마카와를 가던 중 풍랑을 만나 북동쪽으로 흘러갔는데 석양에 높은 산이 보이자 그곳을 목표 지점으로 표류하였고 표착지가 제주 해역이었던 것임.
 - 1858년 제주 모슬포 해변에 사쓰마의 3척이 표류하였고 일본인과 더불어 류큐인 18명이 동승하였음. 관리의 질문에 의해 일본과 유구가 서로 교역하고 있음이 밝혀짐.
 - 1861년 제주 대정현 과진포에 류큐인 3명과 사쓰마 표류민 31인이 표착하였음. 여기서 류큐가 이미 사쓰마에 복속되었음이 밝혀짐.
 - 1887년 3월 제주 정의현에 일본인 2명이 표착하였음. 1886년 조선과 일본은 “표민경비상환법”을 개정하여 지역사회의 표민에 대처하였음.¹⁶⁾

○ 섬 네트워크와 제주

- 하마시타 다케시의 해역 세계론에서 섬 네트워크에 대한 진술이 있음. 그에 의하면 섬은 항만이며 이동과 집산이 활발한 네트워크 센터. 섬들은 서로 연관성을 지니며 도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교역과 이민을 활성화함. 제주 또한 섬 네트워크의 한 결절지임.

15) 정성일, 같은 책, pp. 285-291.

16) 정성일, 같은 책, pp. 383-384.

- 고대부터 제주는 남중국해를 횡단하여 주산군도와 교역하였고, 북으로 장산군도 그리고 남으로 해남도에 이르는 교역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¹⁷⁾
- 해양실크로드와 제주의 연관성은 쿠루시오 해류의 방향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음. 중국 동남부 해안가에서 출발한 바닷가 교역은 해류를 따라 제주도 근해까지 교역선과 상인들이 진출하였을 것인데, 이는 아랍 지리학자 이드리스가 편찬한 세계지도에 한반도를 6개의 섬으로 묘사한 데서 알 수 있음. 수십만이 몰려 사는 중국 동남부 해안과 신라사회와의 공범위한 교역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제주가 국제 교역의 흐름 속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큼.¹⁸⁾
- 왜구에 대한 재해석도 해역세계의 섬 네트워크와 연관됨. 15세기 동아시아의 해역에 발호하던 왜구가 여러 종족이 혼종된 세력이라는 점과 섬 네트워크를 통하여 활동하였던 점을 이해할 수 있음.

○ 해역세계와 다양한 문화접변과 문화교섭

- 제주의 문화는 다양성과 혼종성(hybridity)이 특징임. 이는 해역세계와 다양한 문화접변(acculturation)과 문화교섭(cultural interaction)이 이루어졌기 때문.
- 단일한 신화체계(mythology)로 환원되지 않는 제주의 신화들(myths)과 설화들은 제주가 여러 부족들이 거주한 지역임을 알게 함. 삼성신화는 부족들의 혼재가 연합체가 되는 과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음.
- 주호(『후한서』에 등장하는 제주명) 시대 이전에는 여러 부족들이 해안선을 둘러 영역들을 나누어 차지하고 있음, 그 가운데 하나가 주호로 불리다가 모흥혈을 중심한 신앙집단이 나머지 부족을 통합하여 탐라라 칭하면서 탐라(『당서』에 전하는 제주 명칭)라는 부족문화가 형성되었지만 서로 다른 부족문화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임.¹⁹⁾

17) 고용희, 앞의 책, pp. 118-119.

18) 이희수, 「해양실크로드와 제주」,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서경문화사, 2011, pp. 27-36.

- 주호와 탐라는 제주를 통칭하는 대외 명칭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해역세계로 나아가는 다양한 부족들의 느슨한 결합을 의미한다고 할 때 제주가 지닌 문화적 개방성과 다양성은 기원에서 내재해 있는 것임.
- 탐라가 고려에 복속되면서(고려 숙종 10년, 1105)고려의 지배권에 놓이지만 소국 탐라의 문화를 고려가 통합하는 것은 아님. 이는 탐라가 제주로 명칭이 변경되는 충렬왕 21년(1295) 이후에도 지속되며 제주를 해역 안에 가두어 두려한 조선조에 이르러 유교 문화와 다양한 제주문화의 습합이 나타남.
- 몽골지배기 100년이 끼친 문화적 영향도 제주 문화의 다양성과 혼종성을 나타내는 표지가 됨. 몽골 지배가 수탈과 문화접변이라는 양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인데, 해역세계의 문화와 유목문화가 만나는 접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음.
- 조선조 유교 정책(무불타파)과 유배인들이 끼친 영향, 출육금지령 등 쇄국정책과 중앙정부의 지배의 여파가 제주 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옴. 이처럼 제주는 외부의 지배문화와 제주의 자율적인 문화가 만나 다양한 문화접변을 이루어 왔음.
- 일제의 지배와 해방 이후 국민국가의 통치 아래 놓인 제주는 그 주변부에서 강제적인 문화접변을 강요당함. 이는 조선시대의 강제된 유교문화에 상응하는 것이지만 더욱 강력한 폭력성을 지님. 이러한 점에서 제주 문화의 혼종성과 다양성을 자발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 그 속에 내재한 제주민의 자율성과 저항성을 살피는 것이 타당함.

○ 근대 제국 지배기 제주의 항로와 인적 교류

- 제주와 오끼나와는 해역세계의 결절지여서 지정학적인 측면의 주목을 늘 받아왔음. 제주와 오끼나와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접경지역으로 주변 강대국과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아왔음.

19)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pp. 23-31.

- 일본 제국이 지배하던 시기에 제주와 오사카의 항로는 매우 활발했음. 제주와 일본의 네트워크²⁰⁾는 제일 제주인 1세대의 일본 이동으로 시작됨.
- 제주와 일본의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22년 10월 값싼 노동인력을 실어 나르는 운반선이었던 기미가요마루의 취항임. 기미가요마루는 제주읍의 산지항을 기점으로 조천, 김녕, 성산포, 표선, 서귀포, 고산, 한림, 애월 포구 등 제주도를 한 바퀴 돌아 시모노세키를 거쳐 오사카까지 운항하였음. 이 당시 제주민은 제주도와 오사카를 매우 빈번하게 왕래하였음. 1934년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민은 약 5만으로 당시 제주도 총인구의 25%에 해당함.
- 일제시대에 일본에 건너간 제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음. 오사카 전체로 볼 때 70~75% 정도의 동포들이 귀환했지만 제주민이 밀집해서 살았던 이쿠노구에서는 60% 정도의 동포들이 귀환하였음.
- 1999년 기준으로 오사카의 이쿠노구의 인구는 14만 4천여 명인데 그 중 30%가 한국인이며 한국인 가운데 80%가 제주출신임. 이러한 점에서 제주와 오사카 혹은 일본의 네트워크는 현존하고 있음.

○ 내국 이민과 해외 이민으로서의 제주민 네트워크

- 제주민 해외 이민이 처음 시작된 것은 제주의 잠수(潛嫂)가 일본 하치조 섬에서 우뚝가사리를 채집한 1903년으로 기록되어 있음. 근대 공업 노동자로서의 도일은 1911년 셋쓰 방적 기즈가와 공장이 제주도에서 직공을 모집한 이후임. 그리고 본격적으로 1923년 제주도-오사카 정기항로가 개설되면서 도항수가 증가함. 1934년 제주도내 4만 7466호 중에 3만 498호에서 취업노동 허가증을 얻은 도항자가 나갔음.²¹⁾
- 제주민 네트워크는 해외 이민과 내국 이민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20) 유철인, 「제주사람들의 생활세계에서의 일본」, 『제주와 오키나와』, 보고서, 2013. pp.282-288.

21) 이지치 노리코, 「재일제주인의 이동과 생활」, 『제주와 오키나와』, 보고서, 2013. pp. 296-319.

해외 이민을 대표하는 네트워크가 앞서 말한 일본과 제주의 경우. 일본과 제주 네트워크는 일제시기를 1세대로 하고 해방 이후 4·3과 한국전쟁의 와중에 일본으로 밀항한 2세대가 있음. 그리고 일본이 고도성장기로 접어든 1960년대와 70년대 박정희정권 시대에 제주민들이 많이 있던 일본으로 건너간 세대가 3세대임. 1980년대 이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일본으로 건너가 체류한 소위 '뉴커머'가 4세대라 할 수 있음.

- 제주민 해외 네트워크는 로컬이 국가(national)와 지역(regional)과 연동되어 월경과 이동이 전개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임. 제주민 해외 네트워크는 국민 국가 중심적인 시스템으로 포착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함. 일본은 제주민의 생활세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므로 로컬과 리저널을 중층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제주의 해외 네트워크가 가지는 의의가 드러남.
- 잠수의 이주도 주목을 요함. 식민지시기에 들어 이들의 이동은 급격히 늘었고 일본과 국내를 포함 1932년에는 5,078명의 잠수들이 타지로 나가 물질을 하였음. 일본의 각지는 물론 중국의 대련과 청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이르기까지 해안마을의 여성들이 크고 작은 무리를 지어 이동하게 됨.
- 제주민의 내국 이민은 한반도 남해안 지역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이는 고대 탐라의 영역이 한반도 남해안을 포함하고 있는 데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전개된 내륙 이주와 연관됨. 근대에 와서 취업과 학업을 따라 육지부로 이주하는 제주민의 수는 급속하게 증가함. 서울이 단연 압도적이며 부산, 인천, 광주 등 대도시에도 집중되어 나타남. 1990년대 이전에는 전라남도과 부산이 강세였으나 현재는 서울과 경기도가 크게 우세함.

○ 타자의 시선에 비친 제주

- 독일인 지그프리트 겐터의 여행서사인 『신선한 나라 조선, 1901』의 마지막 4장이 제주에 대한 기행으로 채워져 있음. 그는 타자의 시각으로 당시 한라산 등을 탐사하였고 이재수의 난에 대해 기술하

고 있음.

- 미국의 지리학자 데이비드 네메스는 풍수이론을 통하여 제주의 문화경관을 해석하고 있음. 그는 제주의 문화 경관에 내재한 특성을 “계몽된 저개발”(enlightened underdevelopmen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함. 이 개념은 제주민들은 지혜를 통하여 자연, 인간, 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 맺음의 이치를 배웠고 낮은 기술력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을 지혜로 극복해왔음을 의미함. 그에 의하면 제주의 경관은 과거에 예의를 갖추려는 어진 민중에 의해 만들어진 정성어린 경관임.
- 데이비드 네메스의 “계몽된 저개발”은 요시다 타로가 쿠바를 설명하며 동원한 개념인 “반-성장”의 개념과 닮아있음. 개발과 성장이 아니라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환경의 섬이 제주의 미래라 할 수 있음. 그는 “제주도 풍수는 도교, 불교, 유교 그리고 미신적인 영향의 독특한 조합으로써 돌하루방과 더불어 나타났는데, 이들의 영향은 전 산업시기에 완성기로 접어들며 사람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동시에 그 수혜자인 거의 이상적인 유기체적 경관을 만들어내었다”고 말함.

○ 다양한 재현에 나타난 해역세계의 제주

- 제주 출신 작가들의 글쓰기(현기영, 한림화, 최근 조중연의 소설 『탐라의 생활사』 등)와 해방 이후 귀환자 서사 그리고 제주 출신 자이니치(在日)의 글쓰기(재일 제주작가와 재일제주인의 생활사)에 나타난 제주 표상. 김영갑의 사진과 이중섭과 강요배 그림 등이 접근하는 시선의 차이, 이민자들이 서술한 제주와 스스로의 역사를 말할 수 없는 서발탄의 제주 서술 등이 있음.

○ 제주 네트워크의 역사적 변화과정

- 제주 네트워크는 비록 도식적이지만 역사적으로 3단계로 나눌 수 있음. 1단계가 탐라의 해역 네트워크라면 2단계는 중앙 국가권력과

제국에 예속된 시기이고 3단계는 21세기 새로운 해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기임.

- 각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1단계는 소국 탐라가 선박기술과 항해기술로 해역의 여러 섬들과 한반도 남해안 지역과 네트워크를 형성한 시기임. 2단계는 내륙 국가와 제국에 복속된 시기로 특히 조선조에 의한 폐쇄와 수탈이 심각함. 근대의 일본 제국과 국민국가도 제주를 폭력적으로 지배하거나 육역의 부속도서로 제도화하였음. 3단계는 새로운 해양시대와 연관됨. 근대화가 제1해양화로 국가주의적 발전을 도모하였다면 세계화는 제2해양화로 세계적, 지역적 네트워크를 강조함.
- 제주는 3단계의 해역세계 네트워크 시대와 만나고 있음, 이러한 계기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 요긴함.

○ 해역세계 제주와 평화도시 구상

- 해역세계 속의 제주는 일국 이제도 모델 혹은 일국 다제도 모델을 수용하여 동아시아 평화의 섬으로 발전시켜야 함.
- 동아시아 지중해와 평화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함. 이는 제주와 해역의 섬과 해양도시들을 지역적(regional) 스케일에서 연계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함.
- 제주는 다양한 문화교섭과 문화접변으로 다문화와 문화 혼종성 공간이라는 열린 인식이 필요한데, 이럴 때 국제자유도시의 가능성이 더욱 확대됨.

V.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과 정책적 과제

- 지역정책은 지역학에 기반하여 수립되어야 함. 지역학과 지역정책의 상관성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지님.

지역학→지역 정체성과 비전→정책→시책

-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을 통해 제주의 지역 정체성과 비전 그리고 지역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동아시아 해역 속의 제주를 하나의 결절지 혹은 네트워크 도시로 재정립할 수 있음. 이는 공항과 해항을 통해 가능함.
 - 공항(airport)을 통해 일본열도와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 네트워크를 형성함.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국제자유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임.
 - 해항(seaport)을 통한 섬 네트워크는 제주-쓰시마-후쿠오카-오키나와 대만, 그리고 중국의 칭다오와 따렌 등을 잇는 크루즈 항로 개발을 통해 가능함.
 - 제주와 동남아시아 해항도시 네트워크 구상도 요긴함, 특히 동남아시아 해항도시들은 제주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동아시아 지중해 내의 여러 해항도시들과의 교류는 꾸준히 확대되어야 함. 이러한 일은 나아가 해양실크로드와 연결되고 대서양의 신한자 동맹이나 암스테르담 등의 사례와도 접목될 수 있음.
 - 고대 항로나 표류의 경로를 탐험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탐구할 수 있음. 특히 안 안스 벨테브레(박연)와 핸드릭 하멜의 표류를 매개로 동남아시아 해역도시와 나가사키의 연계 속에서 제주를 배치시키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음.

- 제주와 일본 네트워크, 제주와 동남아시아와 네덜란드 네트워크, 제주와 몽골 네트워크를 통해 동아시아 해역과 대서양 해역 그리고 내륙에 이르는 국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 제일 제주민과 제주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제주 오사카 항로를 축제의 일환으로 기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제주 축제에 제주와 오사카를 왕래함으로써 해역세계 속의 제주의 위상을 제고하고 제일 제주민과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과의 교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임.
 - 제주와 동남아시아 해항도시 그리고 네덜란드 등 서구 해항도시와 교류 사업을 펼치는 일이 요긴함, 하멜을 기념하는 사업도 충실한 고증을 통하여 재구성하는 일이 요구됨.
 - 제주와 몽골의 기억을 창조적으로 재생산할 필요가 있음, 몽골 제국의 지배라는 이분법적 사유에서 벗어나 제주 속에서 몽골을 다시 재현하고 이를 기념함으로써 제주로 몽골을 불러오는 노력이 요구됨, 이로써 제주는 육역 몽골과 긴밀한 교류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에 바탕을 둔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장소와 공간, 설화와 역사적 인물 등을 해역세계와 연결하는 기획을 수행함.
 - 제주의 신화와 설화를 해역세계 시좌에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스토리텔링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스케일의 제주를 정립함.
 - 허다한 표해록을 스토리텔링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아울러 표해록에 바탕을 둔 소설과 드라마 그리고 시나리오 창작이 가능하며 나아가 게임 시나리오 구성도 있을 수 있음.
 - 제주의 장소와 공간을 해역세계의 시좌에서 탐구하여 스토리텔링함으로써 제주와 해역의 연계성을 높임.
 -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 스토리텔링을 다매체화(multi-use)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제주의 해역세계 브랜드 가치를 높임.
 - 해역세계로 펼쳐진 이주와 이민의 역사를 스토리텔링함으로써 제주

민 네트워크를 재인식하는 사업을 전개함.

- 해역세계를 통해 들어온 생물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창작하여 제주 해역의 생명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생명사랑과 평화에 대한 관심을 진작함.

○ 제주가 지닌 내발적 발전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계몽된 개발”, “반개발”을 지속가능한 제주의 지역목표로 삼아 이를 세계화함.

- 해역세계 속의 제주라는 시좌를 통해 제주지역을 다층적인 장소와 공간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요긴함.
- “마을 같은 제주”(독일 뮌헨의 슬로건이 “마을 같은 도시” 임)라는 개념을 통해 마을이 희망이라는 구체적인 전범을 마련함, 마을 만들기의 가장 적합한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이 제주임, 이를 통해 다채로운 마을을 만들고 보여주는 과정이 가능함.
- 제주는 세계적인 자연문화유산지역임, 개발이 아니라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시스템을 지속해야 함, 제주가 지닌 내발적 역량은 자연환경과 인문경관임, 이는 제주의 지역목표의 항상적인 근간이 되어야 함. 이러한 목표 아래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해역세계 속의 제주는 동아시아 평화의 섬이라는 관념으로 발전해야 함. 이는 해역세계 속의 섬 네트워크와 해항도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가능함.

- 제주는 국가 중심적 시스템의 시좌를 넘어서는 위상을 지닐 때, 국가와 지역을 위해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토포스임.
- 제주와 오키나와와 대만을 잇는 평화의 섬 네트워크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형성하는 일에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음.
-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제주는 수탈과 고통의 섬이 아니라 해역세계로 열린 평화와 희망의 섬으로 재정립되어야 함.

참 고 문 헌

- 강근형 외, 2013,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출판부.
- 강봉룡 외, 2012, 『목포권 다도해와 류큐열도의 도서해양문화』 민속원.
- 강봉룡 외, 2011, 『바닷길과 섬』, 민속원.
- 강정효, 2011, 『대지예술 제주』, 각.
- 강상중·요시미순야, 임성모 외역, 2004, 『세계화의 원근법』, 이산.
- 고용희, 2006, 『바다에서 본 탐라의 역사』, 각.
- 구모룡 외, 2011, 『부산학과 미래도시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 국립제주박물관 편, 2008,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
- 국립제주박물관 편, 2009, 『제주의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
- 국립제주박물관, 2010, 『제주의 올레 박물관에서 걷다』, 그래픽네트.
- 국립제주박물관, 2011,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서경문화사.
- 국립제주박물관, 2013, 『세계의 섬을 찾아가다』, 서경문화사.
- 김경옥, 2012, 『섬과 바다의 사회사』, 민속원.
- 김성호, 2012, 『일본은 구다라 망명정권』, 기파랑.
- 김순이외, 2012, 『제주 유배인과 여인들』, 여름언덕.
- 김영갑, 2004, 『그 섬에 내가 있었네』, Human & Books.
- 김영돈, 1999, 『한국의 해녀』, 민속원.
- 김영원 외, 2003, 『항해와 표류의 역사』, 솔.
- 김영희, 2012, 『소설 하멜』, 중앙 Books.
- 김준, 2010, 『한국어촌사회학』, 민속원.
- 다이앤 머레이, 2003, 『그들의 바다 : 남부 중국의 해적 1790-1810』, 심산.
- 모모키 시로, 최연식 역, 2012,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민속원.
- 문충성, 2003, 『그때 제주바람』, 문학과지성사.
- 박찬식, 2013, 『1901년 제주민란연구』, 각.
- 박경훈, 2013, 『제주담론』, 각.
- 박배균 외편, 2013, 『국가와 지역』, 알트.
- 손승철, 2008, 『해동제국기의 세계』, 경인문화사.
- 송성대, 1996, 『제주인의 해민정신』, 제주문화.

- 송성대 외, 2010, 『제주지리론』, 한국학술정보.
- 신정일, 2012, 『새로 쓰는 택리지 제주』, 다음생각.
- 신행철 외, 1995,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 야노토루 편, 1997, 『지역연구의 방법』, 전예원.
- 안미정, 2008, 『제주 잠수의 바다밭』, 제주대출판부.
- 양성필, 2012, 『신화와 건축공간』, 생각나눔.
- 오모토 케이이치 외편, 김정환 역, 2003, 『바다의 아시아』 1-6, 다리미디어.
- 유홍준, 2012,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7』, 창비.
- 윤명철, 2012, 『해양사연구방법론』, 학연문화사.
- 윤성익, 2007, 『명대 왜구의 연구』, 경인문화사.
- 윤용택 외 편, 2013, 『제주와 오끼나와』, 보고서.
- 이산하, 2003, 『한라산』, 시학사.
- 이영, 2011, 『왜구와 고려·일본관계사』, 혜안.
- 이영, 2007, 『잊혀진 전쟁 왜구』, 에피스테메.
- 이영권, 2005,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 이영권, 2004,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 이원진, 김찬읍 외역, 2002,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 전경수, 1999,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대 출판부.
- 전경수, 2010, 『탐라 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 정성일, 2013, 『전라도와 일본』, 경인문화사.
- 정진술, 2009, 『한국해양사』, 경인문화사.
- 정진술, 2009,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한국해군전략연구소.
- 제주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2013, 『제주민주화운동사』, 선인.
- 제주국제협의회 외편, 2012, 『평화번영을 위한 제주의 국제화』, 오름.
- 제주국제협의회 편, 2010, 『21세기 제주발전의 모색』, 오름.
- 제주평화연구원, 2012, 『2012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 늘
폼플러스.
- 조성윤 외, 2012, 『추자도 바당』, 블루앤노트.
- 조중연, 2013, 『탐라의 사생활』, 삶창.
- 좌혜경 외, 2005,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 좌혜경, 2000, 『한국 제주 오끼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 주강현, 2011, 『제주 기행』, 웅진지식하우스.
- 주희춘, 『제주 고대 향로를 추적한다』, 주류성출판사, 2008.
- 지그프리트 겐터, 권영경 역, 2007, 『신선한 나라 조선』, 1901, 책과함께.
- 최부, 서인범 외역, 2004, 『표해록』, 한길사.
- 최열, 2012, 『옛 그림을 따라 걷는 제주길』, 서해문집.
- 풍계 현정, 김상현 역, 2010, 『일본표해록』, 동국대출판부.
- 하네다 마사시 편, 현재열 외역, 2012, 『17-18세기 아시아 해항도시의 문화교섭』, 선인.
- 하네다 마사시, 이수열 외역, 2012, 『동인도회사와 아시아의 바다』, 선인.
- 하멜, 신복룡 역주, 1999, 『표류기』, 집문당.
-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집위원회, 2010, 『중·근세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 한일관계사학회, 2006, 『통신사 이예와 한일관계』, 새로운 사람들.
- 현용준, 2009,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 홍순목, 2013, 『장편소설 조선인 박연』, 알에치코리아.
- 히라노 겐이치로, 장인성 외역, 2004, 『국제문화론』, 풀빛.
- A. Dirlik, *The Postcolonial Aura*, Westview Press, 1997
- F. Gipouloux, *The Asian Mediterranean: Port Cities and Trading Networks in China, Japan and Southeast Asia, 13th-21st Century*, Edward Elgar, 2011.
- Haneda Masashi, *Asian Port Cities 1600-1800*, Nus Press Singapore,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Jeju Studies with Maritime World Perspective

Keywords: Jeju, local, regional, global, maritime world, culture

So far, researches about Jeju have been made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cale". While the shore is in most cases perceived from a national or local perspective, "the maritime world" has a potential to be newly cognitively mapped. Using a regional or world viewpoint to cognize Jeju should be connected with a methodological change through which the island is understood from not a shore, but a maritime viewpoint. Researching Jeju should be a work that establishes a new position of the island by means of a new methodology. This suggests the necessity of "Jeju studies as a methodology" and further "maritime studies of Jeju" that seek to recognize Jeju from the viewpoint of the island and thereon build up a world prospect of the region.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establish Jeju studies as a new methodology. For the establishment, it is most important to employ the perspective of the maritime world. This perspective is quite significant as the 21st century when we live is best characterized as the trans-national era. That prospective would open a way through which Jeju moves from an island of disputes and sufferings to that of peace.

It was the late 1990s when Jeju studies began to be sought as a new methodology. At that time, regional studies began to be recommended by the state under the cause of "globalization". Since then,

Jeju studies has been developed from subdivisional and material studies to integrated science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to a new methodology of recognizing locality.

As a part of regional studies, Jeju studies focus on things local. Though belonging to regional studies, it is time for Jeju studies to go beyond local and partial discussions. Forming a framework to newly describe Jeju is not different from creating ways to interpret historic experiences of Jeju and prospect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island. So far, the history of Jeju has been treated as that of a frontier or peripheral area. As not an inland, but a maritime region, nevertheless, Jeju has its own unique locality. Seeing Jeju only from the view of people of the island is the very starting point of Jeju studies. Without understanding processes that those people have experienced historically, it is difficult to discuss Jeju.

Overcoming the conventional regional centralism or localism is the prerequisite for the new regionalism. To understand the scale view and the fractal structure of the world system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new regionalism. A methodological orientation towards newly recognizing a level called "local" and going beyond a framework based on national dimension is the new regionalism.

The theory of the Mediterranean by Braudel brought the generation of regionalism and the theory of the maritime world. Regionalism contributed to convert the world from being national to being international. While, the theory of the maritime world promoted understanding the world from not the shore, but the maritime perspective. Compared to the European theory of the Mediterranean, the East Asian or Asian theory of the Mediterranean provides an opportunity to see the Korean peninsula and Jeju from a different view.

Takeshi Hamashita provided a paradigm called "Asia of the Sea". The paradigm recognizes that the sea has historically and complicatedly intertwined with the human society and functioned as a

network. Masashi Haneda stresses "the network of maritime cities", a new model of the world history, emerged since the 1990s, that complies with the realities of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which are best represented by globalization, changeability and interconnection.

Jeju studies, which employs the perspective of the maritime world pays attention to the networkability of that world on the basis of a historical position that the island has locally had. It's not easy to newly form Jeju studies from that perspective. But it would be possible if we sort out and reorganize the accomplishments of prior researches about Jeju as a maritime region.

Jeju studies work largely on the following par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aritime world ; 1) relations between the history of Jeju and the maritime world, 2) trades and exchanges in the maritime world, 3)the history of drifts in the maritime world, 4) the networks of islands and Jeju, 5) the maritime world and a diversity of acculturation and cultural interactions, 6)routes to and from Jeju and personal and material exchanges with the island in the period of modern imperial rule, 7) the networks of people of Jeju from local and foreign immigration, 8) Jeju viewed from others, 9) Jeju of the maritime world represented in a variety of reproductions, 10) historic changes of Jeju networks and 11) Jeju of the maritime world and ideas of a peace city.

Focusing on Jeju from the lens of the maritime world would reposition the island as a knot or networked city within the sphere of the Asian waters. Sticking to the matters of Jeju as a maritime region should be possible from finding how to maximize the island's internal capacity of development. This would help create cultural strategies and tourist policies exclusive for Jeju and promote the storytelling of the isl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aritime world.

연구진

연구책임 구 모 룡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제주학연구 5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 방법론 연구

발행인 || 공 영 민

발행일 || 2013년 10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90-162 제주시 아연로 253

전화 : (064) 726-6138 팩스 : (064) 751-2168

홈페이지 : www.jst.jdi.re.kr

인쇄처 || 하나CNC

ISBN : 978-89-6010-334-4 9309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